소송,파산관재,채권회수,기업법무,투자컨설팅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yisngmin@gmail.com
(021)525-5959, 0816-1911-245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www.haninpost.com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2005년 10월 5일 창간 주간 제1033호 광고/구독 문의: 카톡 haninpost 유료 : 35만 루피아/월 4회 e-Paper 2026년 9월 15일

印尼 방재청, 반뜬 해안 쓰나미 대비 총력 점검

- 화산 경보 3단계(Siaga) 격상… 판데글랑 · 세랑 · 찔레곤 일대 ‘ 쓰나미 잠재 위험 지도화 ’ 착수
- 유네스코 ‘ 쓰나미 레디(Tsunami Ready) ’ 기준 적용, 조기경보 · 대피 인프라 및 주민 대응 역량 정밀 평가
- 2018년 순다 해협 쓰나미 악몽 되풀이 막는다… BNPB “민 · 관 합동 대비태세 구축 만전”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위치한 아낙 크라카타우(Anak Krakatau·GAK) 화산의 분화 활동이 다시 격화되면서 경보 수준이 3단계(경계·Siaga)로 격상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쓰나미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전방위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은 산하 예방 담당 부서를 주축으로 반뜬 주 정부 및 주요 해안 군·시 지방정부와의 공조를 전격 강화하고, 반텐주 주요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쓰나미 대비태세 지도화 및 현장 실사’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파사우란 관측소에서 관측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활동 현황, 화요일(8/9). (Tim Kedeputian Bidang Pencegahan BNPB)

■ Tsunami Ready 기준 적용… 3개 주요 시·군 해안가 정밀 진단

이번 조사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로 인한 해저 산사태 및 지진해일(쓰나미)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판데글랑(Pandeglang) 군, 세랑(Serang) 군, 찔레곤(Cilegon) 시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의 글로벌 표준 지표인 ‘쓰나미 레디(Tsunami Ready)’ 기준을 각 지역의 지리적 위험 특성에 맞춰 정밀하게 적용했다.

베르톤 SP 판자이탄(Berton SP Panjaitan) BNPB 재난자료·정보·통신센터장 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BNPB 예방 전담팀이 지난 2026년 9월 6일부터 현장에 급파되어 해안 지역 대비태세 평가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판자이탄 대행은 “이번 조사는 판데글랑군의 탄중 렐종, 숨베르자야, 파님방자야 마을을 비롯해 세랑군과 찔레곤시의 주요 해안 마을 등 지난 2018년 순다 해협 쓰나미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던 취약 지역을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며 “단순한 물적 인프라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비상 대응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 인프라 점검 결과…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경보 장비 정비 시급

현장 실사 결과, 조사 대상 해안 지역 다수는 기본적인 방재 시스템을 갖추고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판데글랑군 수문(Sumur) 지구와 판님방(Panimbang) 지구의 경우 조기경보 사이렌 타워가 정상 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비상 대피로의 노면 및 안내 표지판 상태가 양호했다. 주민 대상 정기 재난 모의훈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탄중 렐종에 설치된 지진·쓰나미 경보수신시스템(WRS Gen) 장비는 현재 기능 보수를 위한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정상화가 요구되는 상태다.

세랑군의 살리라, 까랑 수라가, 아니아르 마을에서는 민간 중심의 재난위험감축포럼(FPRB)과 해안 자원봉사단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으며, 사이렌 타워와 지정 임시 대피소(안전지점)로 이어지는 피난 동선이 명확히 확보되어 있었다. 아울러 대표적 산업 항만 도시인 찔레곤시 꾸방사리 동 점검에서는 쓰나미 조기경보 표준운영절차(SOP)의 수립 여부, 동 단위 현장 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통한 신속한 비상 정보 전달 체계, 구청 구역 내 쓰나미 사이렌의 신뢰성 등이 합격점을 받았다.

■ 단순 시설 점검 넘어 ‘주민 역량·SOP’ 결합된 입체적 방재 촉구

BNPB는 이번 점검을 통해 조기경보 시스템의 완결성, 비상 대피로 및 피난처의 유효성, 지자체별 SOP의 현실성, 그리고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의 비상 대응 역량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 대비태세는 양호했으나, BNPB는 단 하나의 장비 결함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수리 중인 탄중 렐종의 WRS Gen 장비처럼 주요 경보 자산의 상시 100% 가동을 보장할 것을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했다.

BNPB 관계자는 “장비와 시설의 물리적 구축만으로는 주민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조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1분 1초를 다투어 고지대로 피신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대피로와 집결지를 상시 유지·보수하고 주민 대피 역량 강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8년의 비극 되풀이 막는다… ‘가짜 뉴스’ 차단 및 공식 정보 준수 당부

BNPB는 지방재난관리청(BPBD) 및 기상기후지질청(BMKG), 화산지질재난예방센터(PVMBG)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실시간 공조를 통해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폭발 지수와 해수면 변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해안 주민들의 불필요한 집단 패닉과 온라인상 유언비어(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당시 화산체 붕괴로 발생한 기습적 무경보 쓰나미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던 트라우마가 지역 사회에 깊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우려를 모았던 화산재 분출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8일(화) 오후 관측 및 정밀 종이 검사(paper test) 결과 반텐 내륙 및 해안 지역에서 추가적인 화산재 강하는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화산 경보가 최고 직전 단계인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BNPB는 비상시 호흡기 보호를 위해 지자체 비축 창고 내 방진 마스크 확보 현황을 재점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반텐 해안 일대의 주민 일상생활과 공공 서비스, 산업 시설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또한 소셜미디어와 지역 통신망을 통해 검증된 공식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등 성숙한 재난 대응 태세를 보이고 있다.

BNPB는 정부, 학계, 기업, 언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펜타헬릭스(Pentahelix)’ 재난 대응 모델을 가동하여 아낙 크라카타우산의 변화 추이에 맞춘 밀착 감시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재난 당국은 “주민들은 근거 없는 소문에 동요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되, PVMBG와 BNPB, 지자체가 발표하는 공식 재난 방송과 권고 수칙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청정원
DAESANG

사장님의 고민은 줄이고, 요리의 품격은 올립니다!

NEW ITEM





압도적인 가성비

~~Rp.599.000~~

Rp.480.000

HARGA EKONOMIS

"프리미엄의 완성"
좋은 고추장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 봅니다

KUALITAS PREMIUM, CITARASA LEZAT!

HALAL INDONESIA
ID00410020848741024



안전관리인증 HACCP
소비자중심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SCAN FOR MORE INFO

추가 정보 및 주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INFORMASI LEBIH LANJUT & PEMESANAN:
0821-3000-6262

자카르타 인근 해역서 규모 6.5 강진 발생… 자바·수마트라 전역까지 흔들렸다

- 12일 새벽 4시 23분, 끄풀라우안 스리부 북동쪽 해역 강타
- 진원 깊이 368km ‘심발지진’ … 쓰나미 가능성은 없어
- 수도권 통근열차(KRL) 일시 전면 중단 후 긴급 점검 거쳐 정상화
- 전문가 “단단한 슬랩 타고 진동 광범위 전파… 진원 깊어 대규모 파괴력은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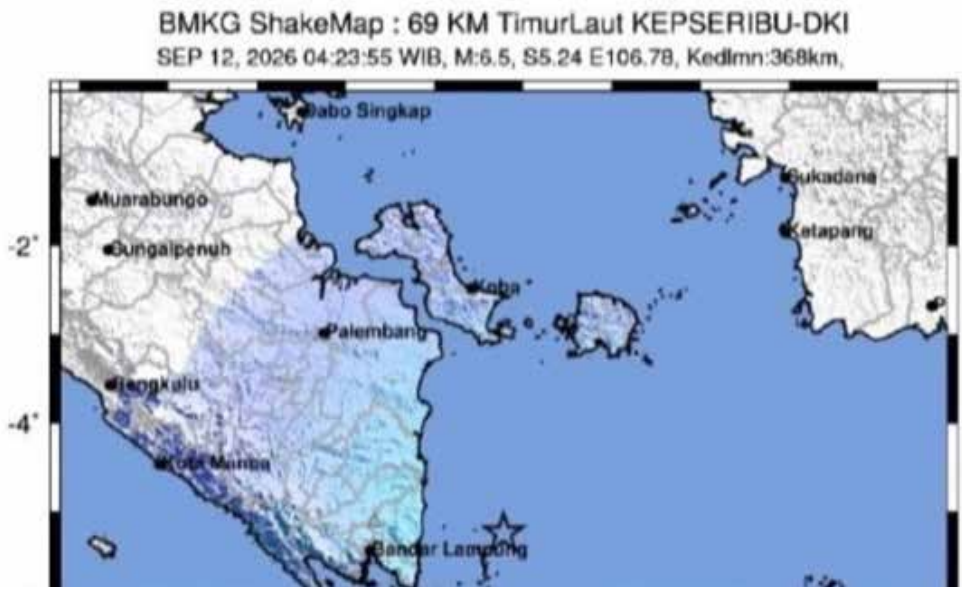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앞바다에서 규모 6.5에 달하는 강한 지진이 발생해 주말 새벽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진동은 진앙 인근뿐만 아니라 자바섬 전역과 수마트라, 칼리만탄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감지되었으나, 다행히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12일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에 따르면, 이날 토요일 새벽 4시 23분(현지시간·WIB) 자카르타 수도특별구(DKI Jakarta) 북부 앞바다인 풀라우 스리부 인근 해역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다. 당초 BMKG는 해당 지진의 규모를 5.9로 발표했으나, 정밀 분석을 거쳐 규모 6.5로 신속히 상향 수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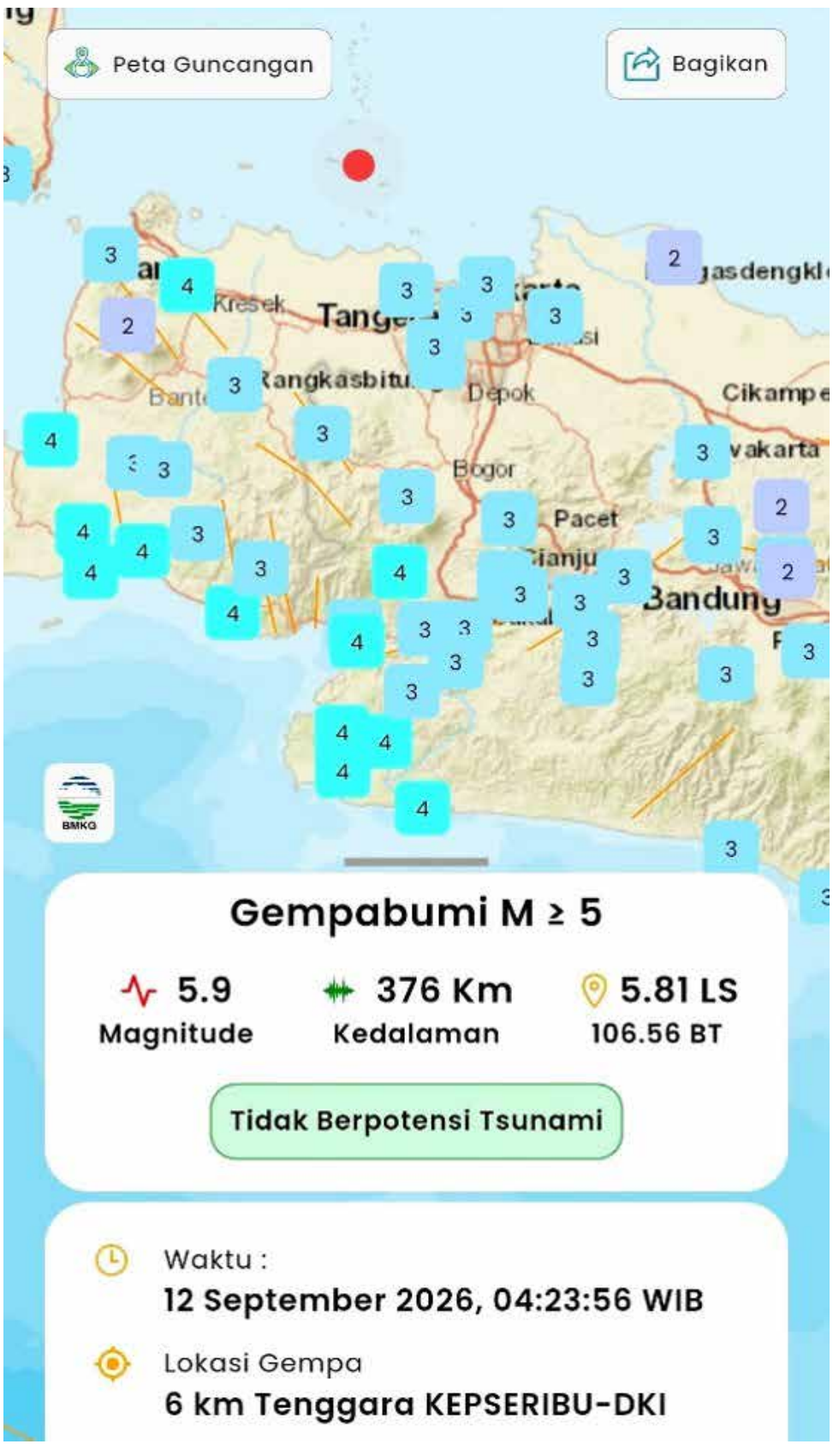
이번 지진의 진앙은 남위 5.24도, 동경 106.78도로, 자카르타 수도특별구 끄풀라우안 스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69km 떨어진 해상이다. 특히 진원의 깊이가 지하 368km에 달하는 깊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측됐다.

위자얀토 BMKG 지진·지진해일국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진앙은 끄풀라우안 스리부 북동쪽 69km 해역으로 측정됐다"며 "진앙의 위치와 진원 깊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침강하는 판 내부 슬랩(intraslab)의 활동과 연계된 전형적인 심발지진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원 메커니즘을 분석한 결과 사교 정단층(oblique normal) 운동에 의해 단층이 파열되며 발생한 지진"이라고 덧붙였다.

비교적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었으나 진원이 지하 300km 이상의 깊은 심도에 위치해 해저 지형의 급격한 변형을 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BMKG는 지진 발생 직후 지진해일(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



Peta lokasi gempa di Kepulauan Seribu, DKI Jakarta, pada Sabtu (12/9/2026) pagi.



자카르타 앞바다서 발생된 6.5규모 지진.2026.9.12

새벽 수도권 흔들… 통근열차(KRL) 일시 중단 등 출근길 여파

새벽 시간대 건물이 뚜렷하게 흔들리는 강한 진동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인프라도 안전 확보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철도공사(KAI)의 통근선 운영 자회사인 KAI 콤뮤터(KAI Commuter)는 철로 안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위해 자보데타벡(Jabodetabek, 자카르타·보고르·데폭·땅그랑·브카시 수도권 대도시권) 일대의 통근열차(KRL) 전 노선 운행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했다.

KAI 측은 공식 발표를 통해 "지진 발생 직후 철로 변형 및 구조물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사전 점검을 위해 모든 통근선 열차의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철로 안전 점검반이 긴급 투입된 결과, 보고르·치카랑·랑카스비퉁·탄중프리옥 노선은 오전 5시 26분경 점검을 마쳤으며, 땅그랑 노선 역시 5시 45분경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점검을 완료했다. 다행히 주요 선로 및 시설물에 중대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현재 자보데타벡 KRL 전 노선의 운행은 정상화된 상태다.

전문가 "초심발지진 특성상 광범위 진동… 감쇠 거쳐 피해 우려 낮아"

이번 지진은 자카르타 북부 해역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바섬 남부인 수카부미를 비롯해 동부 자바, 수마트라, 심지어 보르네오섬 남부 칼리만탄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되어 주민들의 불안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재난전문가협회(IABI) 소속 지진·지구물리학 전문가 다료노(Daryono) 박사는 이번 지진의 광역 감진 현상이 '초심발지진(deep focus earthquake)'의 고유한 지질학적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료노 박사는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진앙 자체는 자카르타 북쪽 바다에 있었으나, 지하 368km 깊이에 위치한 조밀하고 균질한 지판 슬랩(slab) 매질을 통해 지진 에너지가 극도로 효율적으로 전파됐다"고 짚었다. 지진파가 감쇠되지 않고 남쪽 방향 판을 타고 빠르게 전달된 뒤 상부 지표면으로 일제히 확산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지질학적 역학 구조로 인해 진앙 북쪽에 위치한 지역보다 오히려 수카부미 등 자바섬 남부 지역에서 지진동이 더 빠르고 뚜렷하게 체감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료노 박사는 "진원 깊이가 300km 이상에 달하는 중·심발지진은 충격파가 광역으로 도달하는 특유의 파동 메커니즘을 띤다"면서도 "흔들림이 도달한 영역이 넓다고 해서 그것이 지표면에 가해지는 파괴력과 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초심발지진에서 뿜어져 나온 지진파 에너지는 지표면에 도달하기까지 매우 길고 복잡한 매질을 통과하며 점진적인 감쇠 과정을 겪게 된다"며 "진동을 체감한 지역이 넓더라도 실제 건축물 붕괴 등 심각한 대규모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주민들이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BMKG "여진 지속 감시… 유언비어 주의 및 안전 수칙 준수 당부"

한편, BMKG 당국은 추가 피해 예방과 시민 불안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BMKG는 공식 당부를 통해 "시민들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소셜 미디어상의 미확인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침착하게 당국의 공식 발표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지진으로 인해 벽체 균열 등 외관상 손상이 발생한 노후 건축물이나 파손 위험이 있는 구조물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BMKG는 관측망을 총동원해 해당 해역 일대의 여진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추가 지진 활동 징후가 포착될 경우 유관 기관 및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속보] 프라보워 대통령, 푸르바야 재무장관 전격 해임… 후임에 수아하시일 나자라 차관 승진 임명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14일 단행한 개각을 통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수아하시일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부 차관을 전격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인도네시아 국가 재정 운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핵심 요직에서 단행된 급작스러운 교체로 주목받고 있다. 신임 재무부 장관에 오른 수아하시일 나자라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재무부 차관직을 역임해 온 정통 관료이자 경제 전문가다.

이번 임명은 2024~2029년 잔여 임기 동안의 '적백 내각(Kabinet Merah Putih)' 재무장관 해임 및 임명에 관한 대통령령(Keppres) 제97/P/2026호에 따라 공식화됐다. 해당 대통령령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공표됐다.

이날 자카르타 국가궁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나닉 푸르완티 국가사무처 공무원행정 담당 차관은 "수아하시일 나자라 교수를 2024~2029년 잔여 임기의 적백 내각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낭독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의 후임으로 수아하실 나자라를 재무장관(Menkeu)에 임명했다, (14/9/2026 Tangkapan Layar Youtube/Sekretariat Presiden)

이어 수아하시일 신임 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낭독하며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수아하시일 장관은 선서를 통해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충성을 다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모든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며 "직업윤리를 드높이고 지극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로써 수아하시일 장관은 차관직을 마감하고, 2029년까지 이어지는 적백 내각의 남은 임기 동안 인도네시아의 재정 및 경제 정책을 총괄 지휘하게 됐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주요 내각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무게를 더했다. 자마리 차니아고 정치치안조정장관,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HY) 인프라·지역개발조정장관, 유스릴 이하 마헨드라 법무인권출입국교정조정장관, 줄키플리 하산 식량조정장관, 프라틱노 인간개발문화조정장관, 로산 로에슬라니 다난타라(Danantara) CEO 등이 자리했다.

이와 함께 ST 부르하누딘 검찰총장, 헤린드라 국가정보원(BIN) 원장, 아구스 수비얀토 통합군사령관, 아리에스 마르수디얀토 특수개발기획청(Bappisus) 청장, 아말리아 중앙통계청(BPS) 청장, 데디 프라세티오 경찰차장 등 군·경 및 정보·사법 분야 최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해 신임 장관의 취임을 지켜봤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수아하실 신임 인니 재무장관 취임… "예산 효율성, 단순 지출 삭감 아닌 성과 극대화"

- 프라보워 대통령, 수아하실 신임 재무장관 공식 임명

- "재정 적자 GDP 대비 3% 미만 유지… 신뢰 기반 소통 강조"

인도네시아의 신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가 공식 취임 직후 국가예산(APBN)의 효율성은 단순한 지출 삭감이 아닌 국민을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아하실 신임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재무부 수장 자리에 공식 올랐다. 이번 인사는 2024~2029년 잔여 임기 동안의 '메라 푸티(Merah Putih)' 내각 재무부 장관 해임 및 임명에 관한 대통령 결정 제97P호에 따른 것이다.

전임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의 뒤를 잇게 된 수아하실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재정 운용의 '연속성'과 국가예산의 '질적 효율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취임식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수아하실 장관은 "예산 효율성을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긴축의 개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효율성의 본질에 대해 "가용 예산을 통해 집행 지출 대비 최적의 성과(output)를 창출하고, 지출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으로 환원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아하실 장관은 국가예산의 3대 축인 세입, 세출, 재정조달을 언급하며 "세출 부문에서 계획된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도출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확고한 기조도 재확인했다. 그는 국가 개발 의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예산이 항상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를 법정 한도인 3% 미만으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을 거듭 분명히 했다.



수아하시일 나자라(Suahasil Nazara) 신임 재무장관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2024-2029년 잔여 임기 동안 '메라 푸티(Merah Putih)' 내각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입장을 밝혔다. 14 September 2026. Foto: Tangkapan Layar YouTube/Sekretariat Presiden)

아울러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수아하실 장관은 "최우선 과제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운용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투명한 대국민 소통을 통해 예산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예산이 정부의 핵심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아하실 장관은 신임 장관 취임에 따른 재무부 내 리더십 인수인계 작업을 질서 있게 마무리하고 조직 공백 없이 일상 업무 체제로 즉각 복귀하겠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HONGSAM BALL
BEST SERVED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EKSTRAK GINSENG MERAH
Vitamin C ⚡ Vitamin B1 ⚡ Vitamin B6 ⚡ Vitamin B12 ⚡ Mengandung Taurin (83 mg / 250 ml)
HONGSAM BALL
HONGSAMBALL
Minuman Berperisa Berkarbonat Dengan Ginseng
(Hongsamball Original)
Red Ginseng Extract
HALAL INDONESIA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COME BACK STRONG
: hongsamball.id

부패척결위(KPK), '외국인 체류 허가 갈취' 비리 수사 박차… 민간인 및 주부 등 참고인 3명 소환 조사

- 전직 차관 등 고위직 연루된 '1,455억 루피아' 규모 권력형 비리 규명 박차
- 2026년 9월 11일 KPK 메라푸티 청사서 THO, PAZ, OLV 등 집중 추궁
- 자수한 실미 카림 전 차관, 매주 1억 루피아 정기 상납 혐의로 구속 수사 중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이민교정부 내 외국인(WNA) 체류 허가 발급 절차를 둘러싼 대규모 금품 갈취 및 수뢰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당국은 전직 차관 등 이민국 고위 관료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사건의 자금 흐름을 전면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민간인 조력자들로 수사 반경을 넓히고 있다.

KPK는 11일(현지 시간), 체류 허가 발급 비리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민간인 2명과 전업주부(IRT) 1명 등 총 3명의 참고인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디 KPK 대변인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팀은 외국인 체류 허가 관련 갈취 혐의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불법 수익금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인 THO와 PAZ, 그리고 전업주부인 OLV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신문은 2026년 9월 11일(금) 자카르타 남부 소재 KPK 메라푸티(적백) 청사 내 취조실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민간인 참고인 소환 조사는 하루 전인 9월 10일(목), KPK 수사관들이 이민교정부 소속 실무 공무원인 WRM을 청사로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곧바로 단행된 후속 조치다. 수사당국은 공무원 조직 내부의 진술을 확보한 직후, 범죄 수익금의 세탁 및 은닉, 또는 제3자 명의 계좌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과 연관된 민간 관계자들을 긴급히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1,455억 루피아 규모의 조직적 상납 비리… '현행범 체포(OTT)'서 전모 드러나

이번 사건은 이민교정부 실무자들의 외국인 체류 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혐의를 포착한 KPK의 기습적인 현행범 체포 작전(OTT)을 통해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기간 내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온 KPK는 지난 2026년 6월 4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4개년에 걸쳐 외국인 체류 허가를 대가로 광범위한 갈취 행각을 벌인 핵심 피의자 8명을 전격 입건 및 특정했다.

KPK의 추산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 일당이 지난 4년간 부정한 갈취 행위를 통해 수수한 금품 규모는 무려 1,455억 루피아(한화 약 125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대상 비자 및 체류 허가라는 국가 행정 권한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뇌물을 착복해 온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비리 사슬의 최정점에는 전직 차관급 고위 인사가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밝혀져 현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피의자 명단에 오른 실미 카림(Silmy Karim)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민국장을 역임한 뒤 승진해 2025~2026년 이민교정부 차관직을 맡았던 거물급 인사다.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KPK에 자진 출석해 자수한 상태다.

KPK에 따르면 실미 카림 전 차관은 부하 직원들과 브로커 조직으로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1억 루피아(한화 약 86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상납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 행정 수장으로서 불법 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도리어 하부 조직의 갈취 수익을 주 단위로 착복하는 피라미드식 상납 시스템을 구축·유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전·현직 이민청 고위직 및 중간 간부 8명 무더기 기소 수순

실미 카림 전 차관과 함께 형사 입건된 나머지 7명의 피의자 면면 역시 이민 행정 핵심 요직을 차지했던 관료들로 채워졌다.



전 이민교정부 차관(Wamen Imipas) 실미 카림이 부패척결위원회(KPK) 수감자 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dok. istimewa)

구체적으로는 사파르 무함마드 고담(Saffar Muhammad Godam) 전 이민국장 직무대행(2024~2025년)을 비롯해, 자야 사푸트라(Jaya Saputra) 서부자바 이민청 사무소장, 로날드 아르만 압둘라(Ronald Arman Abdullah) 서자카르타 비(非)TPI 특급 이민청 사무소장 등 지방 및 수도권 주요 거점의 총괄 책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본청 실무 결재 라인인 테사르 바유 세티야지(Tessar Bayu Setyaji) 및 바구스 브라만티요(Bagus Bramantyo) 체류허가·이민자격국 산하 과장급 인사 2명과, 주니아디 스리 프리암부디(Juniadi Sri Priambudi) 외국인 임시체류자격 변경팀장, 현장 집행 실무자인 구스티 베나르 디안샤(Gusti Benardiansyah) 체류허가과 실무관 등 비자 발급 및 체류 자격 심사의 전 단계에 걸친 핵심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법조계 및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KPK가 이날 단행한 민간인 및 주부에 대한 조사가 불법 조성된 1,455억 루피아의 자금 은닉처와 차명 재산 형성을 밝혀내기 위한 '자금 추적(Money Trail)' 수사의 막바지 단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KPK 관계자는 "공직자 사회의 고질적인 직권남용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갈취 범죄는 국가 대외 신인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고위직 관료는 물론 불법 수익의 흐름과 연계된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지속해 범죄 수익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PK는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장을 최종 정리해 반부패 특별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산림·토지 화재 대응 지원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요청 대기 중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산림 및 토지 화재(karhutla) 진화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의 공식적인 특별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지원이 즉각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이자 마다니(MADANI) 정부 대변인인 다툭 세리 파흐미 파딜(Datuk Seri Fahmi Fadzil)은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NRES), 외무부(위스마 푸트라), 국가재난관리청(NADMA)이 화재 진압 지원에 동원 가능한 말레이시아의 자산 목록(산림·토지 화재 대응 장비)을 인도네시아 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파흐미 장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산불 진압을 돕기 위해 파견할 수 있는 자산 목록을 이미 송부했다.

파흐미 장관은 수요일(2026년 9월 9일)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각료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NADMA와 외무부는 이웃 국가를 돕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자산 목록을 인도네시아에 전달했음을 내각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흐미 장관은 현재까지 화재 진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화재 진압 자산 활용 및 협력 형태에 관해 어떠한 확인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까지 당국은 대사관과 외무부를 통해 이를 전달했고 NRES 역시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나, 아직 말레이시아 자산의 활용에 대한 확인과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안된 자산의 활용 방안이나 구체적인 협력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어떠한 확인도 받지 못한 상태다.

파흐미 장관은 "그러나 지금까지 화재 진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의 자산을 활용하는 협력 형태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u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ading Bukit Indah Blok A No.5, Kelapa Gading Barat,
Kelapa Gading Jakarta 14240
Telp: +62 21 451 3611,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뉴델리 BRICS 정상회의 참석… 푸틴·시진핑 등 글로벌 정상 한자리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막한 제18차 BRICS(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Foto: Dok. Kemenko Perekonomian)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막한 제18차 BRICS(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섰다.

이번 정상회의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뉴델리의 국제컨벤션센터인 바라트 만다팜(Bharat Mandapam)에서 개최된다. 올해 의장국인 인도는 '회복력, 혁신, 협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축'을 공식 주제로 내걸었으며, 회의장인 바라트 만다팜은 지난 2023년 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현장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대거 집결했다. 아울러 파트너국 및 참관국 정상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 20여 명 이상의 글로벌 지도자가 뉴델리를 찾았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10월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 지평 확장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1월 BRICS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뉴델리에 도착해 사티시 찬드라 두베이 인도 석탄광업부 국무장관의 영접을 받았다.

이번 정상회의는 크게 두 개 핵심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는 회원국 간 비공개 회의(closed session)로 '포용적 글로벌 거버넌스 및 다자주의 강화'를 다루며, 두 번째는 파트너국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회의(open session)로 '회복력, 혁신, 협력 및 지속가능성: 포용적 글로벌 성장을 위한 미래 형성'을 논의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두 세션 모두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수시위조노 무기아르소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차관은 12일 성명을 내고 "회원국과 파트너국 정상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포용성을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흥 경제국들의 연대체로 출발한 BRICS는 기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에 이어 인도네시아, 이란, 이집트, UAE 등으로 외연을 확장하며 글로벌 다극화 체제 속에서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푸르바야 전 재무장관, 경질 직전 '의문의 전화'… DPD 회의 중 급거 퇴장 후 전격 교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전격적인 개각을 단행하고 신임 재무장관에 수아하실 나자라 전 차관을 임명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전 재무장관이 면직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국회 일정을 소화하던 중 의문의 전화를 받고 급히 자리를 뜬 정황이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푸르바야 전 장관은 공식 교체 발표 당일인 14일 오전 10시부터 자카르타 세나얀 국회의사당 단지에서 인도네시아 지역대표의회(DPD RI) 제4위원회와 함께 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가 한창이던 오후, 대통령궁의 이상 기류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목격됐다. 푸르바야 전 장관이 DPD 복도에서 누군가로부터 걸려 온 급한 전화를 받으면서다.

현지 언론 콤파스닷컴에 따르면 푸르바야 전 장관은 상대방을 “아버님(Bapak)”이자 “각하”라고 부르며 “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DPD에 있습니다”라고 극존칭으로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직후 그는 여러 차례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화를 마친 푸르바야 전 장관은 예정된 일정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오후 2시 30분경 서둘러 DPD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퇴장 당시 출구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절 입을 열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다. 다급했던 그의 퇴장은 대통령궁(이스탄나 네가라)의 긴급 호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프라보워 대통령은 푸르바야 장관의 해임을 공식 발표하고 후임으로 수아하실 나자라를 임명했다.

이로써 전 예금보험공사(LPS) 이사회 의장 출신인 푸르바야 전 장관은 지난 2025년 9월 8일 취임한 지 1년 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장관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푸르바야 전 장관은 재임 기간 국가 재정을 총괄하며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당시 102kg이던 체중이 한때 88kg까지 급감했다가 최근 겨우 97~98kg을 회복했다”며 재무장관직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정가에서는 정기 국회 일정을 진행하던 현직 장관이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직후 전격 경질된 배경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JEJU 2026

초 대 장

제 107회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동포 여러분,
우리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의 선전과 건투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출정식을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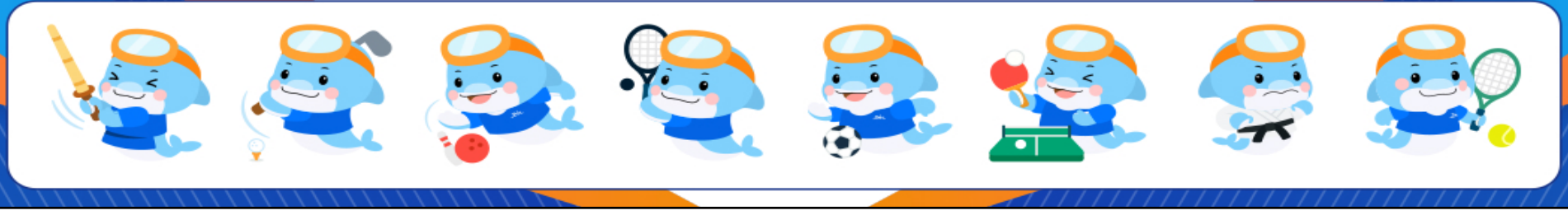


2025년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일시	2026년 10월 7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1층 대강당
선수단 복장	붉은색 단복 착용
	(단복이 없는 분은 긴팔 바틱 또는 한복 착용)
참석문의	사무국 / 김종희 사무총장 0815-1902-0341

회장 김태화
단장 양영연 / 기수 김희익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KOREAN SPORTS ASSOCIATION IN INDONESIA



LG CNS, 인니 차세대 조세행정시스템 ‘코어택스’ 성공 구축… 국세청 감사패 수상

- 2억 8천만 인구 감당하는 국가 핵심 세정 플랫폼 전면 디지털화 완료
- 상반기 조세 수입 전년비 24.6% 급증… 시스템 안정화 및 세수 확대 ‘가시적 성과’
- 20여 년간 축적된 K-전자정부 역량 입증… 향후 AI 접목 등 고도화 사업 추진

[자카르타=한인포스트] LG CNS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차세대 조세행정시스템 ‘코어택스(Coretax)’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안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도네시아 국세청(DGT)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단 없는 세무 행정을 유지하면서 국가 조세 인프라 전체를 전면 개편한 초대형 사업으로, 양국 간 디지털 세정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9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협력 성과 공유회 및 감사패 전달식(DGIST courtesy meeting)에는 이완 드주니아르디(Iwan Djuniardi)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 특별보좌관,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 등 현지 고위 당국자들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김홍근 부사장, 원만식 PT LG CNS 인도네시아 법인장,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9월 11일 자카르타 국세청에서 Iwan Djuniardi 재무부장관 특별보좌관은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김홍근 부사장에게 감사패 전달식을 갖고 있다. 사진 Humas DJP

◇ 2억 8천만 인구 세정 통합… “운항 중인 비행기 엔진 바꾼 격”

‘코어택스(Coretax)’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이 추진한 국가 핵심 디지털 전환(DX) 프로젝트다. 납세자 등록부터 세금 신고, 납부, 환급, 세무조사, 체납 징수 등 그동안 각 기관 및 부서에 분산돼 있던 모든 세무 행정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완 드주니아르디 특별보좌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1990년대 초 도입된 기존 세무 시스템은 2억 8000만 명이 넘는 거대 경제 규모를 지탱하기에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세입 흐름과 납세자 서비스를 단 1초도 중단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작업은 마치 ‘비행 중인 비행기의 엔진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것’과 같았다”며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현대 세무행정 역사상 가장 야심 차고 도전적인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LG CNS는 오스트리아 IT기업 퀄리소프트(Qualysoft GmbH)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스템 구축에 착수, 2024년 12월 성공적으로 개통을 완료했다. 이후 올해 3월까지 초기 안정화 과정을 거쳤으며, 국세청이 자체 운영을 시작한 4월부터는 핵심 데이터베이스(DB)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를 전담하며 기술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 상반기 세수 24.6% 증가 ‘실질 성과’… 세정 투명성 제고

코어택스 도입의 효과는 즉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및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의 조세 수입은 1035조 7000억 루피아(약 79조 3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6% 급증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전반에서 세수가 골고루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코어택스를 통한 조세행정의 투명성 강화, 탈루 방지, 납세자 편의 증진에 따른 자발적 납세 순응도 향상이 세수 확충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전산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기관의 업무 방식과 데이터 관리, 대국민 서비스 철학 자체를 송두리째 바꾼 혁신”이라며 “한국 측의 탁월한 엔지니어링 역량과 헌신, 그리고 양국의 상호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트너십의 핵심은 기술 이전에 있다”며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20년 K-전자정부 신뢰 바탕… ‘AI 조세행정’으로 지평 확대

LG CNS는 이번 감사패 수상을 계기로 현지 세정 플랫폼의 인공지능(AI) 고도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세무 데이터 분석 고도화, AI 기반 챗봇 서비스, 이상 징후 감지 및 업무 자동화 등을 통해 세정 행정의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LG CNS는 지난 20여 년간 인도네시아 경찰청, 재무부 등 주요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공고한 현지 신뢰를 쌓아왔다. 최근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자카르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는 등 민간 및 클라우드·AI 인프라 영역으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부사장)은 “코어택스의 성공적 안착은 양국 정부와 기업 간의 오랜 우호와 긴밀한 원팀(One-Team)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검증된 DX 역량과 차세대 AI 기술을 결합해 인도네시아의 국가 디지털 혁신 여정에 든든한 기술 파트너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 경영센터 종합)



9월 11일 자카르타 국세청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국세청 임직원 그리고 LG CNS 임직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Humas DJP



9월 11일 자카르타 국세청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국세청 임직원, LG CNS 임직원들이 성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BPJPH, 외식 프랜차이즈에 '할랄제품보증 체계'의 일관된 유지 당부

- 2026년 10월 할랄 의무화 앞두고 전 매장의 균일한 기준 이행 촉구
- 단순 인증 취득 넘어 현장 운영의 지속성과 소비자 권리 보호 강조

[자카르타=데일리경제/외신 종합] 2026년 10월 본격적인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증청(BPJPH)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전 매장에 걸친 철저하고 일관된 할랄 관리 체계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BPJPH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단순히 할랄 인증서를 취득하는 일회성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모든 개별 영업점에서 할랄제품보증시스템(SJPH)이 빈틈없이 적용 및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러 가맹점 및 직영점을 운영하는 외식 체인의 특성상 매장별 운영 여건과 준비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본사 차원의 균일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마마트 S. 부르하누딘(Mamat S. Burhanudin) BPJPH 등록·인증 부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할랄 인증 취득은 단순한 행정 규제 준수를 넘어, 모든 사업 프로세스와 제품이 할랄제품보증(JPH)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서 보유와 함께 현장에서의 일관된 실행이 수반되어야만 인증 발급 이후에도 실질적인 할랄 지위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국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제고도 함께 당부했다. 마마트 부청장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3%가 할랄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며, "가격과 맛뿐만 아니라 할랄 여부가 소비 결정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소비자 스스로 매장과 제품의 할랄 로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레스토랑 할랄 인증 준비를 주제로 한 LPPOM 인플루언서 및 미디어 게더링 행사에 참석한 BPJPH(할랄제품보장청) 할랄 등록·인증 부청장 마마트 S. 부르하누딘 박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2/9/2026). (Foto: Istimewa)

BPJPH는 2026년 10월로 예정된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외식 사업자들이 인증 절차 이행을 미루지 말고 모든 사업 단위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마칠 것을 거듭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가상자산 시장, '유틸리티·토큰화' 앞세워 성숙기 진입

개인 투자자 위주 거래서 탈피… 제도권 금융 융합 및 기관 참여 가속화

인도네시아 가상자산 시장이 단순한 개인 투자 중심의 초기 단계를 넘어, 실질적 유틸리티(효용성) 도입과 자산 토큰화를 중심으로 한 성숙기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 폭발적인 거래량과 이용자 수 증가를 기록했던 양적 성장을 지나, 제도권 금융과의 결합 및 기관 참여 확대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모양새다.

현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토코크립토(Tokocrypto)의 캘빈 키자나(Calvin Kizana) 최고경영자(CEO)는 9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가상자산은 더 이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며 "이미 대중적 도입은 완료됐으며, 이제는 생태계의 심화와 효용성 확대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캘빈 CEO는 향후 시장의 성패가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제도권 금융 부문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업계에 주어진 기회는 단순한 리테일(개인) 유입을 넘어 규제화된 금융 유틸리티, 기관 투자자의 참여,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RWA)의 진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자산 도입률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2025 체이널리시스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 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풀뿌리 채택(grassroots adoption) 부문에서 전 세계 151개국 중 7위를 차지하며 전통적인 아시아 금융 허브들을 앞섰다.

금융당국의 통계 역시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뒷받침한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 이용자 수는 2,293만 명에 달했으며, 월간 거래액은 20조 5,200억 루피아(한화 약 1조 7,000억 원)를 기록했다.

다만,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과 신뢰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캘빈 CEO는 "인도네시아는 규제 환경, 결제 인프라, 소비자 행동 양식 등에서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인접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Aplikasi Tokocrypto (Foto: YouTube @tokocrypto)

이어 "막대한 자본력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단기적인 거래량이나 앱 다운로드 수는 늘릴 수 있어도, 시장의 '신뢰'까지 살 수는 없다"며 "투명한 거버넌스, 보안성, 그리고 철저한 규제 준수(컴플라이언스)를 갖춘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인도네시아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의 단순 시세 변동에만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탄한 사용자 저변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이 실물 경제 및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 본격적으로 융합되면서 시장 체질 개선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eekly Global FX Market Monitor

2026.09.14

Indonesia

신한은행 S&T센터 소재용
02-2151-2638, jyso@shinhan.com

환율(USD/IDR)	17,600
52주최고	18,190
52주최저	16,365
주가(Jakarta Index)	6,541
52주최고	9,174
52주최저	5,318
국채금리(10년물,%)	7.15
52주최고	7.51
52주최저	5.94
주요 경제 지표 Snap shot	
실질GDP성장률(%,YoY)	5.29
소비자물가(%,YoY)	3.19
생산자물가(%,YoY)	6.18
정책금리(%)	5.75
제조업 PMI (index)	49.8
산업생산(%,YoY)	1.66
소매판매(%,YoY)	0.50
수출(%,YoY)	6.05
수입(%,YoY)	27.02
경상수지(백만달러)	-12,487
재정수지(십억루피아)	-509,161
외환보유고(십억달러)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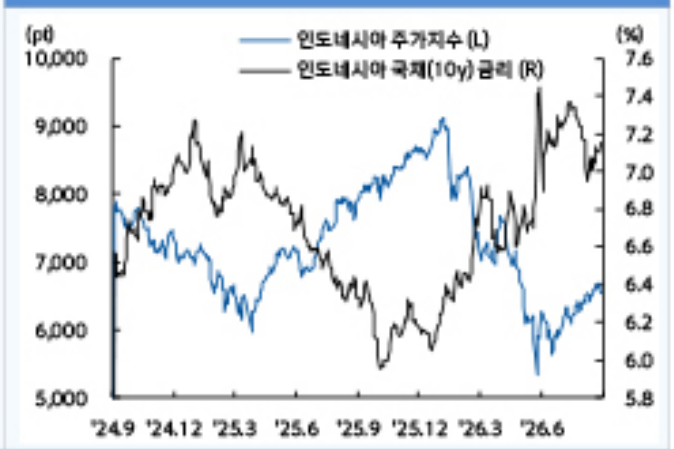
- 지난 주(9/7~9/11) USD/IDR(market rate)는 17,513~17,640 흐름(블룸버그 종가), 전주 대비 강세(0.21%)
- 미국과 이란간 무력 충돌 우려로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중동 불확실성 재부각. 하지만 BI 신임 총재 취임 이후 안정적인 통화정책 구사 기대감으로 인니 금융시장 분위기 개선되면서 루피아 환율도 하락세 연장
- 외국인은 지난 주 5영업일 간(9/7~9/11) 인도네시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순매도 기록
  - 주식: 외국인 순매도(9/7~9/11 누적: 1억 9,101만 달러) 기록, 자카르타 주가지수 하락(-1.43%)
  - 채권: 외국인 순매도(9/7 누적: 1억 1,161만 달러) 기록, 금리 상승(10y, 7.15%, 3.60bp)
- 인니 경제지표 비교적 무게감 적은 반면 FRB 등 선진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대기해 있어 달러 및 유가에 민감성 커질 듯. 당초 9월 연준 금리동결 가능성에 무게 실렸으나 최근 고용에 이어 물가도 기대치 상회하며 인상 경계 강화
- 연준에 앞서 BI가 먼저 금리 올린 만큼 영향력 제한될 것이나, 100달러 넘어선 국제유가로 BI의 추가 인상 저울질 소지. FOMC 앞둔 미달러의 하방경직으로 루피아 환율 하락 속도 조절될 듯(금주 예상 레인지 : 17,500~17,600)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과 달러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인도네시아 주가지수와 국채 금리추이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RE:BOOT Shinhan

YSM

YI SENG MIN & PARTNERS 법률사무소

소송.중재(Litigation.Arbitration)
민사소송.형사소송.파산소송.채무지불의무연기소송.행정소송.
노사분쟁소송.지식재산권소송.중재

기업법무(Corporate)
법률의견서.계약서.담보권설정.정관 개정.청산.철수.자문변호사

관재(Bankruptcy.PKPU)
파산관재.채무지불의무연기관재

투자(Investment)
법률실사.인수.합병.분리.차명투자.지분참여.현지법인설립.
대표사무소개설

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실사.매매중개.임대차중개

자원 개발(Natural Resource)
광산실사.오일팜농장실사.인수.지분참여

가족법(Family)
상속.부부재산분리.혼인.이혼.입양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등록

공증 지원(Notarization Support)
공증 지원. 아포스티유(Apostille) 지원

사용언어(Language) : 한글.Bahasa Indonesia.English

Korea Center Building, 6th Floor, Suite 606,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Tel. : (021)525-5959. 527-2422

대표변호사 이 승 민
YI SENG MIN, SH., MH.
Attorney at Law
MP. :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인도네시아 정부, 국영은행 중심 '전 국민 계좌 개설' 의무화 추진

복지지원금 전달 투명성 및 속도 제고 목적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융 소외 계층을 제도권 금융으로 대거 편입시키기 위해 은행 계좌가 없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일괄 은행 계좌 개설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원금(bansos)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영 상업은행인 PT Bank Rakyat Indonesia(BRI)와 최대 이슬람 상업은행인 PT Bank Syariah Indonesia(BSI)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일괄 계좌 개설 계획의 배경과 세부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 특히 국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푸르바야 재무장관 Menteri Keuangan, Purbaya Yudhi Sadewa. (Istimewa)

"사회복지지원금의 신속·정확한 전달이 핵심 목표"

푸르바야 재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각종 정부 보조금과 사회복지지원금 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및 중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수혜 대상자에게 직접 자금을 송금하는 직불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푸르바야 장관은 "사회복지지원금을 비롯해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공적 지원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그것이 바로 프라보워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국가 복지 전달 체계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망 연계 통한 미보유자 식별… 만 18세 이상 '자동 개설' 검토

정부는 계좌 미보유자를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금융 데이터를 전면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무부 주민등록총국(Dukcapil)의 신원 인구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예금보험공사(LPS)의 금융 거래 정보망을 통합 대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진행 중인 초기 논의 단계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국민을 선별하여 본인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계좌를 자동으로 개설해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향후 만 18세 이상의 모든 인구를 전수 확인하여 아직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무 구상을 제시했다.

나아가 신규 성년 진입자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의무화·자동화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된다. 그는 "주민등록증(KTP)을 신규 발급받는 모든 국민에게 즉시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개설되는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방식이 정착될 경우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완전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계좌를 확보하고 정부 지원금까지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예치금 지원 방안 거론… 구체적 시행 시점은 '신중론'

계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푸르바야 장관은 새로 개설되는 계좌에 약 5만 루피아에서 8만 루피아(한화 약 4,300원~6,800원 상당) 수준의 초기 시드머니(예치금)를 입금해 주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자금은 단순 개설 축하금을 넘어 정부의 초기 사회복지지원금 지급 체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대규모 계좌 개설이 현실화할 경우,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농촌 및 도서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정부 재정의 직접 지급망이 확립되어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무부는 정책의 성급한 추진에 따른 혼선을 경계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구체적인 정책 시행 일정과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 제기된 계획들은 1차적인 부처 간 내부 논의 단계에서 다뤄진 구상일 뿐이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 및 참여 은행 간의 추가적인 세부 조율이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 경영센터 종합)

PT. BIC JAYA INDONESIA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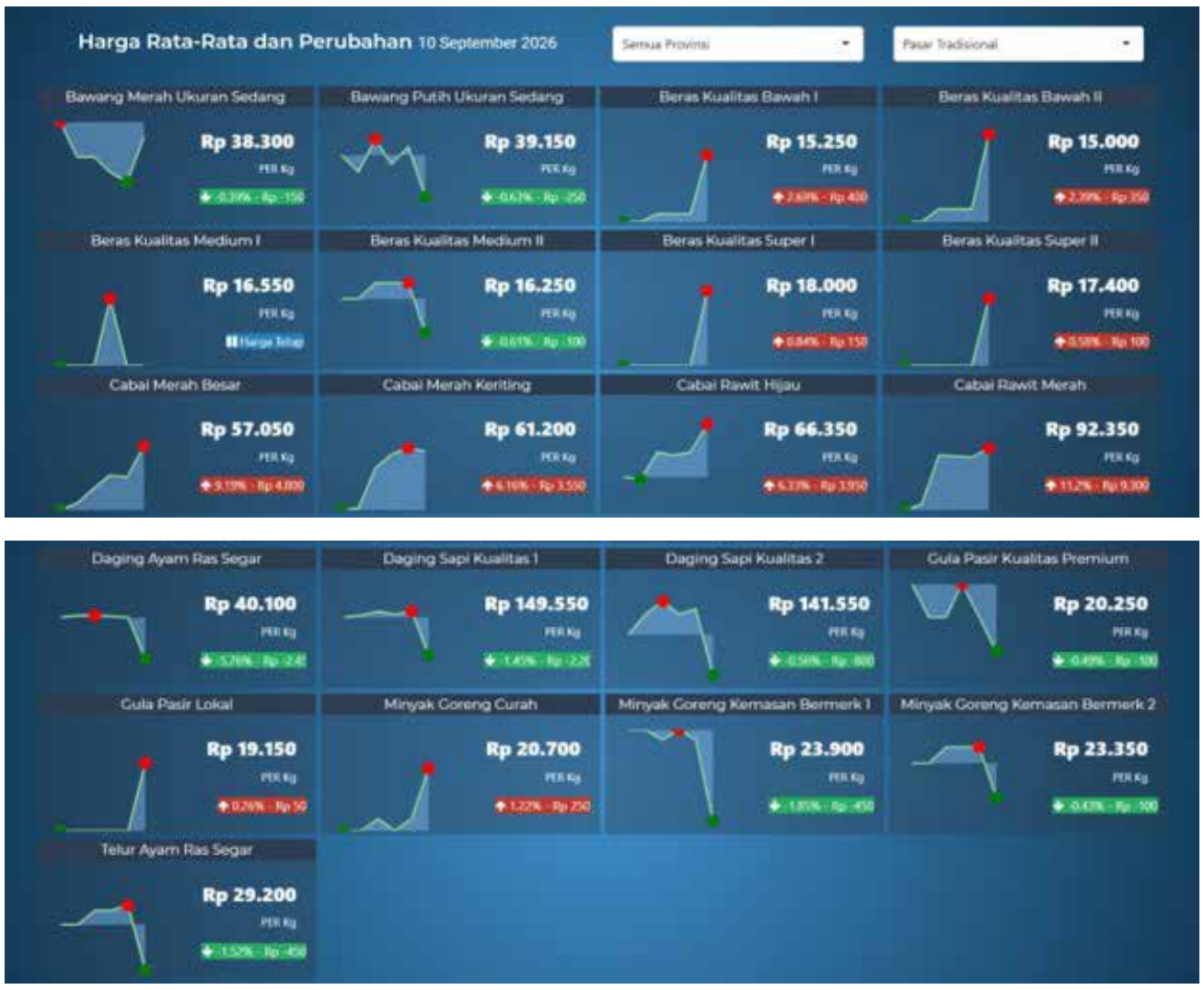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광부,노동부,할랄청,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고추류·일부 쌀 가격 일제히 급등… 육류는 소폭 하락세

2026년 9월 10일 기준 인도네시아 국가전략식품가격정보센터(PIHPS) 물가 동향 분석

[자카르타=한인포스트]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기준, 인도네시아 내 주요 식료품 가격이 품목별로 뚜렷한 등락을 보이며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이 관리·운영하는 국가전략식품가격정보센터(PIHPS)가 발표한 자료(목요일 오전 10시 서부인도네시아 표준시(WIB) 기준)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소매 유통 단계에서 거래되는 주요 기초 농축산물 가격이 일제히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고추류 전 품목의 가파른 상승세와 육류 가격의 안정세가 대조를 이뤘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이 관리·운영하는 국가전략식품가격정보센터(PIHPS)가 발표한 전통시장 및 소매 유통 주요 기초 농축산물 가격. 2026년 9월 10일

◇ 고추류 전 품목 '폭등'… 붉은 새우고추 11% 이상 급등

이번 물가 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동 폭을 기록한 품목은 단연 고추류다. PIHPS가 모니터링하는 전 유형의 고추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붉은 새우고추(Cabai Rawit Merah)의 가격 상승세가 가장 매서웠다. 붉은 새우고추는 전일 대비 11.2%(Rp9,300) 급등하며 1kg당 Rp92,350까지 치솟아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키웠다. 녹색 새우고추(Cabai Rawit Hijau) 역시 6.33%(Rp3,950) 오른 1kg당 Rp66,350에 거래를 마쳤다.

일반 고추류 또한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대형 붉은 고추(Cabai Merah Besar)는 9.19%(Rp4,800) 상승한 1kg당 Rp57,050을 기록했으며, 붉은 곱슬고추(Cabai Merah Keriting)도 6.16%(Rp3,550) 오른 1kg당 Rp61,200으로 집계됐다. 유통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공급망 및 산지 출하량 변동이 고추류 전반의 단기 가격 급등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주식인 쌀 가격 등락 엇갈려… 저급·특급 쌀 소폭 상승세

국민 주식인 쌀 시장은 등급별로 상반된 가격 흐름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서민층 소비가 많은 저급 쌀과 고소득층 수요가 높은 특급 쌀은 가격이 오른 반면, 중급 쌀은 보합 및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저급 쌀 I은 2.69%(Rp400) 오른 1kg당 Rp15,250, 저급 쌀 II는 2.39%(Rp350) 오른 1kg당 Rp15,000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급 시장을 형성하는 특급 쌀 I은 0.84%(Rp150) 상승한 1kg당 Rp18,000, 특급 쌀 II는 0.58%(Rp100) 오른 1kg당 Rp17,400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 비중이 가장 큰 중급 쌀의 경우, 중급 쌀 I은 1kg당 Rp16,550으로 전일 수준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나타냈고, 중급 쌀 II는 0.61%(Rp100) 소폭 내린 1kg당 Rp16,250에 머물렀다.

◇ 신선육류 가격은 하향 안정세… 달걀은 보합 유지

채소류와 곡류의 가격 상승과 대조적으로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신선 육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신선 육계(닭고기)는 5.76%(Rp2,450)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며 1kg당 Rp40,100을 기록해 서민 육류 소비의 숨통을 틔웠다. 소고기 가격 역시 완만한 내림세를 보였다. 1등급 소고기는 1.45%(Rp2,200) 내린 1kg당 Rp149,550으로 집계됐으며, 2등급 소고기 또한 0.56%(Rp800) 하락한 1kg당 Rp141,550으로 조사됐다.

단백질 대표 식품인 신선 육계 달걀은 1kg당 Rp29,200 수준을 유지하며 가격 변동 없이 안정세를 이어갔다.

◇ 백설탕·식용유 등 가공 및 조미 식자재 동향

기타 필수 식자재인 백설탕과 식용유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 속에 미세한 조정을 거쳤다.

백설탕의 경우 품질 및 생산 유형에 따라 움직임이 갈렸다. 프리미엄 품질의 백설탕은 0.49%(Rp100) 내린 1kg당 Rp20,250에 거래된 반면, 로컬(국산) 백설탕은 0.26%(Rp50) 소폭 오른 1kg당 Rp19,150을 기록했다.

조리 필수품인 식용유는 기존 가격대를 유지했다. 대량 유통되는 벌크형 식용유는 리터(L)당 Rp20,700으로 집계됐다. 제조사 브랜드 포장 제품의 경우 브랜드 포장 식용유 I이 리터당 Rp23,900, 브랜드 포장 식용유 II는 리터당 Rp23,350 수준을 각각 나타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추류 전반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 전체적인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초 식료품의 공급 안정화와 유통 경로 점검을 위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oori consulting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수아하실 신임 재무장관 취임…
인도네시아 증시, 장중 급락 딛고 낙폭 축소 마감



Menteri Keuangan yang baru Suahasil Nazara, (Foto: Dok. Kemenkeu)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IHSG)가 재무장관 전격 교체라는 대형 정치·경제적 변수 속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소폭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2.6% 넘게 폭락하며 불안감을 키웠으나, 신임 장관의 공식 취임 이후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며 낙폭의 대부분을 만회했다.

2026년 9월 14일(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에 따르면, 이날 IHSG는 전 거래일 종가(6,541.38포인트) 대비 6.69포인트(0.10%) 내린 6,534.6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6,533.87포인트로 출발해 장 초반 6,550포인트까지 오르며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는 듯했으나,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장관에서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신임 장관으로의 수장 교체 소식이 전해지며 1차 거래 세션 중 매도세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지수는 장중 한때 6,371.39포인트까지 추락하며 전일 대비 2.6%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아하실 장관이 공식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자 장 막판 반등에 성공, 하락 폭을 대부분 좁힌 채 거래를 종료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신임 재무장관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아하실 장관은 2019년 10월부터 재무부 차관을 지낸 내부 인사로,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전 장관을 보좌하며 국가예산(APBN)과 주요 재정 정책을 직접 운용해 온 정통 관료 출신이다.

키움증권 인도네시아의 리자 카멜리아 수랴나타(Liza Camelia Suryanata)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의 시장 흐름은 꼬리 위험(tail risk) 축소에 따른 안도 랠리 성격이 짙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들은 재정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내부 인사가 수장에 오른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불안 심리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국가 예산 편성 및 재원 조달, 세제 개편, 국가 채무 관리 등 거시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인 만큼, 이번 인선 결과는 향후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전반의 신뢰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수가 급락 하루 만에 복원력을 보인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이제 신임 장관 체제 하의 재정 정책 기조에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글로벌 복합 위기 속 루피아화 가치 급락세… 달러당 1만7,850루피아 돌파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전망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세가 맞물리면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가운데, 오는 주 루피아화 환율이 미 달러당 1만7,850루피아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외환 및 원자재 시장 전문 분석가인 이브라힘 아수아이비(Ibrahim Assuaibi)는 주간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복합 악재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다음 주 거래에서 미 달러당 1만7,850루피아 안팎까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시장 충격에 따라 이를 웃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연준 '베이비스텝' 기대감 재점화… 달러 강세 압력 지속

루피아화를 짓누르는 핵심 요인은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 및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브라힘 분석가는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4.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주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연준이 보다 공격적인 통화정책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현지 여론조사 결과, 경제학자의 약 85%가 연준이 차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는 종전의 70% 수준에서 대폭 상승한 수치로, 이러한 통화 긴축 기대감이 루피아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강세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DXY) 역시 90.30~100.20의 높은 변동성 범위 내에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정세 악화와 국제 유가 급등, 원자재발 인플레 충격 가중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역시 루피아화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중동 지역의 군사적 대치와 전략적 해상 항로 봉쇄로 인한 물류 차질이 국제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브라힘은 다음 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91.60달러에서 최대 103.5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이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국제 유가 상승은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 악화와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해 루피아화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인니 중앙은행 개입 여부가 분수령… 단기 추가 약세 불가피할 듯


Nilai tukar rupiah kini menyentuh Rp17.611 per dolar AS. (Sumber: Istimewa)

이 같은 통화 가치 하락 압력은 지난주 외환시장 마감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인도네시아은행(BI)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일(금) 기준 자카르타 은행간 달러 환율(JISDOR)은 미 달러당 1만7,611루피아를 기록해 전 거래일의 1만7,536루피아 대비 75루피아 상승(통화 가치 하락) 마감했다.

만약 루피아화가 이번 전망대로 달러당 1만7,850루피아에 도달할 경우, 지난 11일 종가 대비 약 239루피아의 추가 하락이 발생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루피아화의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은행이 시장 개입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달러당 1만7,850루피아 전망은 복합적인 대외 악재를 반영한 지표"라면서도 "향후 인도네시아은행의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직접 개입 강도, 중동 사태의 추가 전개 양상, 미국의 실제 금리 결정 수위, 그리고 신흥국 자본 유출입 추이에 따라 환율 상단이 제한되거나 반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자카르타 도심을 달리는 NEXT K-푸드, ‘K-할랄·스트리트푸드’로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

농식품부 · aT, 자카르타 마라톤 행사 연계 ‘Next K-푸드 홍보관’ 운영



자카르타 도심을 달리는 NEXT K-푸드



자카르타 도심을 달리는 NEXT K-푸드



자카르타 도심을 달리는 NEXT K-푸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9월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열린 시민 참여형 마라톤 행사인 Car-Free Day와 연계한 ‘K-할랄·스트리트푸드 홍보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6년 인도네시아 NEXT K-푸드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알렸다.

Car-Free Day는 매주 일요일 아침 자카르타 도심에서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열리는 대규모 마라톤 행사로 매주 5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는 행사이다. aT는 현장의 분위기에 맞추어 ‘Run Together with your NEXT K-FOOD’ 슬로건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과채주스, 두유, 크룽지 스낵, 떡볶이 등 다양한 K-할랄·스트리트푸드 제품의 시식을 통해 인지도와 선호도를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K-푸드와 연계한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하여 한국식품에 관심이 높은 MZ세대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다. ‘NEXT K-푸드 Runner’로 선발된 참가자 20여명이 단체 달리기를 마친 뒤 K-푸드 꾸러미와 완주 메달을 받았으며, 턱걸이 챌린지 등 신선한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홍보관에 많은 소비자가 몰렸다.

현장 부스를 방문한 레자 씨는 “매주 주말마다 친구, 가족들과 함께 Car-Free Day에 참여해 달리고 간식을 즐기는 것이 일상이다”며 “이곳에서 K-푸드를 접하게 되니 새롭고, 간편하고 맛있는데 할랄 인증까지 갖춰 저절로 관심이 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aT가 권역별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NEXT K-푸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체인구의 40%가 무슬림에 해당하는 아세안 권역에서는 할랄식품과 스트리트푸드를 전략품목군으로 선정하고, 공동 마케팅을 통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집한 현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10월 바이어 상담회 및 2차 Car-Free Day 홍보관을 순차 추진해 현지 진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aT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자, 국민의 약 87%가 무슬림이고 절반이상이 MZ세대인 젊은 할랄 시장”이라며 “10월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점인 만큼,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K-할랄·스트리트푸드를 중심으로 거대 시장의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자카르타 aT센터 자료제공)


가야성
Ga Ya Sung
중화 요리 전문점
Since 1997
New!
자연을 마시다,
리얼 코코넛!
지금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개 구매 시
45K
2개 구매 시
더~욱 저렴하게!
75K
100% REAL COCONUT
시원하게! 건강하게! 코코넛 한 잔의 힐링!
100% 자연 그대로
수분 가득 수분 보충
저칼로리 건강한 선택
시원하고 상쾌하게!
예약 문의
081295094658
지금이 기회!
한정 기간 특별 가격 놓치지 마세요!
COCONUT
Fresh & Natural
Ga Ya Sung | Grand Wijaya Center Blok F No. 48 | Jakarta Selatan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재무장관 전격 교체 여파로 약세… 달러당 1만7,669루피아 마감



Nilai tukar rupiah terhadap dolar AS. (Foto: Istimewa)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이 재무장관 교체라는 대형 정치적 변수 속에 약세로 장을 마쳤다.

14일(현지시간) 외환시장에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전 거래일 대비 58포인트(약 0.33%) 하락한 달러당 1만7,669루피아를 기록했다.

이번 환율 하락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수아실 나자라를 신임 재무장관으로 전격 임명하고, 지난 1년간 재무부를 이끌어온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전 장관을 경질한 직후 나타났다. 재무장관직은 국가 재정 정책과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요직인 만큼, 이번 개각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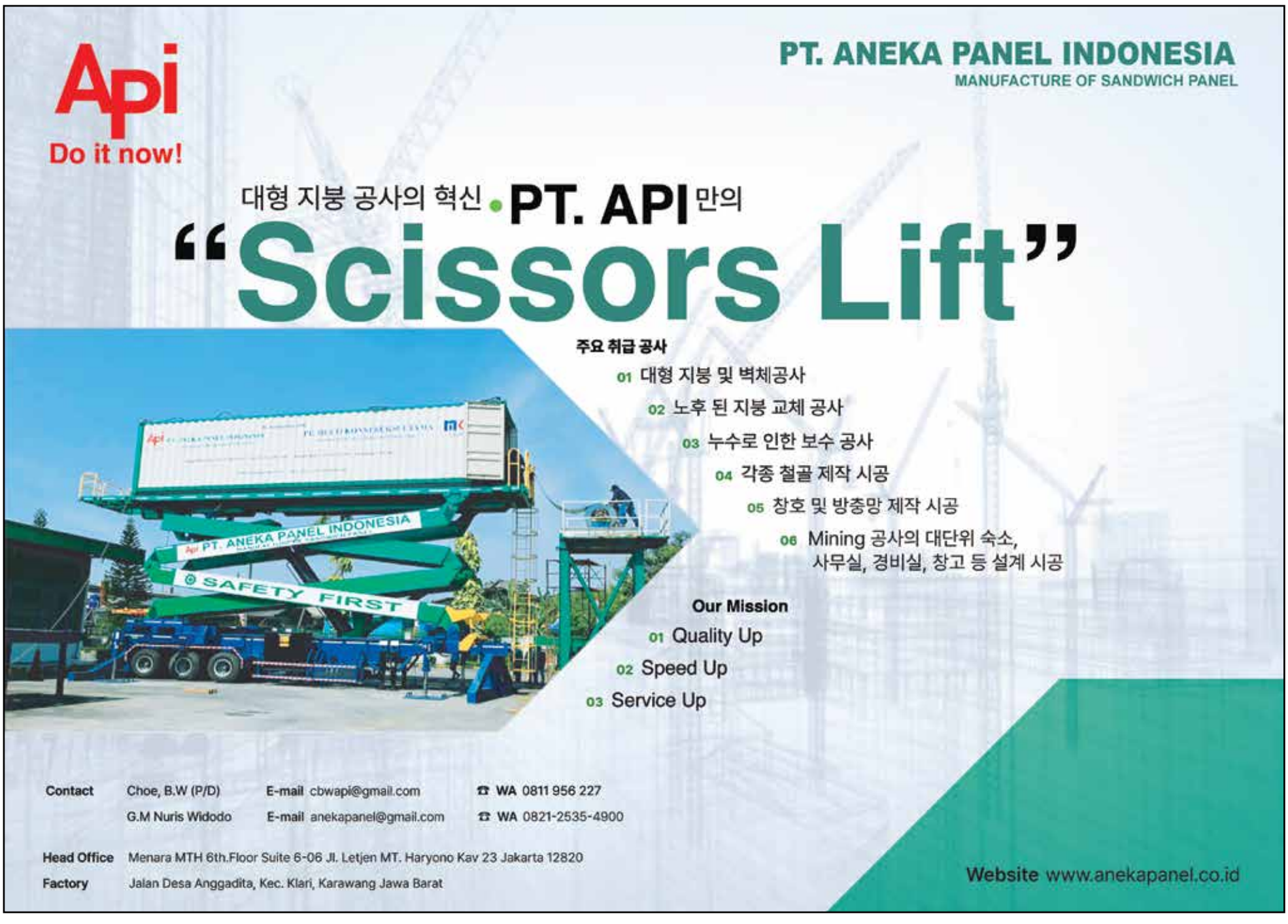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전격적인 내각 개편이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화 분석가 이브라힘 아수아이비는 "이번 개각은 매우 갑작스럽게 단행됐으며, 이는 시장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종합주가지수(IHSG)가 당일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으나, 이번 조치의 여파로 다음 날 장 개장과 함께 루피아화와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특히 재정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푸르바야 전 장관은 재임 중 재정적자 비율을 2.68%에서 2.86%로 조정하고, 기준 유가를 배럴당 70달러에서 80달러로 상향하는 등 예산안을 현실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아울러 '무료 급식(MBG)' 정책 및 '메라 푸티 협동조합'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긴축 및 조정을 추진해 왔다.

이브라힘 분석가는 푸르바야 전 장관의 경질 배경에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푸르바야 전 장관은 국세청과 관세청 등 재무부 내부 개혁과 인적 쇄신을 강력히 추진해 온 '청렴한' 관료였다"며 "이러한 정화 작업이 역설적으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등 기득권층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정치적 적을 만든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신임 수아실 나자라 재무장관은 대통령령 제97호(2026년)에 따라 2024~2029년 잔여 임기 동안 재무부를 이끌게 된다. 이날 프라보워 대통령의 주재하에 열린 취임식에서 수아실 신임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 윤리를 존중하며, 국가를 위해 성실히 책무를 다하겠다"고 선서하며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사시사대로 음성
2026 음성군 복숭아 인도네시아 홍보 판촉전
Promosi Buah Persik Eumseong-gun
in Indonesia Tahun 2026
DATE : SEP 17th ~ SEP 20th 2026
LOCATION :
#1 Diamond Mal Artha Gading: Jl. Artha Gading Sel. No.1, Klp. Gading Bar., Kec. Klp. Gading, Kota Jkt Utara,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4240
#2 Hero Mall Pondok Indah: Pondok Indah Mall 1, G Floor Blok D-0 Jl. Metro Pondok Indah, Kebayoran Lama, Jakarta Selatan, Jakarta, Indonesia
#3 Mugunghwa Pusat: Jl. Senayan No.43, RT.8/RW.5, Rw. Bar., Kec. Kby. Baru,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180
#4 The Foodhall - Grand Indonesia: Grand Indonesia shopping West Mall, Jl. M.H. Thamrin No.1 LG Floor, Kb. Melati, Kecamatan Tanah Abang,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350
음성군
MU GUNG HWA
GTL Global Top & Leader NAMSUN GTL CO., LTD.

프라보워 대통령,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30억 루피아 포상금 약속

- 결단식서 선수단 격려… SEA 게임 3배 수준 파격 보상 제시
- "성과에 걸맞은 예우 다할 것" … 은 · 동메달리스트 및 지도자 진급 지원도 강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자국 선수에게 30억 루피아(약 2억 6천만 원)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이스타나 네가라(대통령궁)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대표팀(가루다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이 같은 보상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격려사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회의 위상과 난도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소년체육부와 논의를 거쳐 2025년 동남아시안게임(SEA 게임) 금메달 포상금(10억 루피아)의 3배에 달하는 30억 루피아를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표 직후 결단식장에서는 선수들과 정부 내각 인사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은 메달 색깔과 관계없이 국가적 기여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약속했다. 그는 "경찰 등 공직에 몸담은 선수와 지도자 중 성과를 내고도 승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고 있다"면서 "잘한 일은 잊고 실책만 기억하던 과거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국위선양에 기여한 이들에게는 인색하지 않게 전폭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에릭 토히르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배웅과 전폭적인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에릭 장관은 "국가가 선수단 뒤에 든든히 서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대통령의 지원 덕분에 올림픽, 아시안게임, SEA 게임 등 대회별·종목별 맞춤형 전지훈련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Asian Games 2026 출정식에서 프라보워 대통령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인도네시아는 35개 종목에 걸쳐 총 432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다. 이미 농구, 우슈 등 주요 종목 선수들은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지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7개를 획득했던 인도네시아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4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막바지 담금질에 매진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System Ever Indonesia | 영림원소프트랩

더 튼튼한 기반, 더욱 크게 성장한 비즈니스

- 회계 (Accounting)
- 생산 (Manufacturing)
- 재고 (Inventory)
- 급여 (Payroll)
- 보세구역 (Bonded Zone) 지원까지

비즈니스 규모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

+62 811-1997-1017
www.systemever.co.id

인도네시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단 결단식 개최
프라보워 대통령 “2억 8천만 국민의 긍지 보여달라” 당부

- 35개 종목 총 430명 태극전사 파견… 임원 및 지원 인력 포함 총 653명 규모
- 프라보워 대통령, 스포츠클라이밍 간판 베드릭 레오나르도에게 국기 수여
- "스포츠는 국가의 위상과 직결…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 발휘해야" 강조

오는 9월 일본에서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선수단이 공식 출정 채비를 마치고 결의를 다졌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6년 9월 9일(현지 시각) 자카르타 대통령궁(Istana Negara)에서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인도네시아 선수단 공식 결단식 및 파견식’을 주재하고, 대장정에 오르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에 파견되는 인도네시아 선수단은 총 35개 종목, 430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여기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사, 물리치료사, 마사지사, 본부 임원 등 임원진 145명과 지원 인력 78명이 합류하여 총 653명 규모의 대규모 선수단이 일본 현지로 향할 예정이다.

이날 결단식에는 프라보워 대통령을 비롯해 프라세티오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 테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사무처 장관 등 ‘메라푸티 내각(Kabinet Merah Putih)’ 주요 각료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공식 행사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선수단 대표로 나선 스포츠클라이밍 간판스타 베드릭 레오나르도 선수에게 인도네시아 국기인 ‘메라푸티(Bendera Merah Putih)’를 상징적으로 수여하는 기수단 기 전달식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에서 조국을 대표해 출전하는 모든 선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며, 국가를 대표해 국제무대에 서는 이들의 막중한 사명감을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여러분을 직접 마주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운을 뗀 뒤, "스포츠는 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대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2억 8,700만 국민 가운데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치열한 예선을 뚫고 선발된 인원은 여기 모인 단 430명에 불과하다"며, "수억 명의 국민을 대신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것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영예로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느끼는 소회를 진솔하게 전하며 선수들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그는 "나는 현재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이자 군에서도 최고 계급에 오른 바 있으나, 솔직한 심정으로는 여러분처럼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경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과장이 아닌 진심 어린 고백"이라며 선수들의 노고와 대표성을 극찬했다.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회 기간 동안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과 함께 불굴의 투지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경기 매 순간마다 인도네시아의 명예를 가슴에 품고 뛰어주길 바란다"면서 "인도네시아의 건아들이 어떤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기개를 지니고 있음을 아시아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똑똑히 각인시켜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에서 프라보워 대통령
Presiden Prabowo Subianto (Foto: dok. Istimewa YouTube Setpres RI)

이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인 강세 종목과 신흥 메달 유망 종목을 포함해 총 35개 세부 종목에 출전하여 메달 사냥에 나선다.

인도네시아가 출전하는 35개 종목은 다음과 같다. △양궁 △육상 △수상 종목 △배드민턴 △농구 △복싱 △카누/카약 △조정 △사이클 △e스포츠 △승마 △펜싱 △골프 △체조 △하키 △유도 △가라테 △근대5종 △파델 △세팍타크로 △사격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 △서핑 △스쿼시 △태권도 △탁구 △테니스 △테크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배구 △역도 △레슬링 △우슈 △종합격투기(MMA).

한편,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오는 2026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자카르타에서 출정 결의를 다진 인도네시아 선수단은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하며 신체적·정신적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메달 획득을 위한 막바지 담금질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고객의 평가가
KPCM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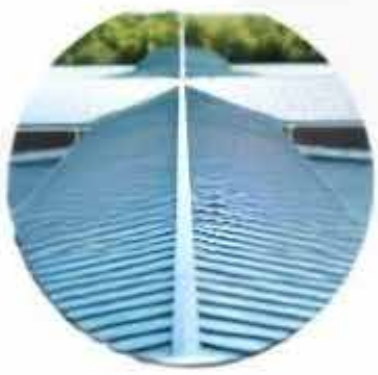
★★★★★



WALLING & ACP



INTERIOR



ROOFING



CONSTRUCTION



FLOORING



WAREHOUSE



EPOXY & CONCRETE POLISHING



PANEL



MECHANICAL & ELECTRICAL

산업단지 개발, 공장 건축, 인테리어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전문

SAMSUNG CJ HYUNDAI LOTTE Mart
ZINUS LocknLock LG EMSONIC
PT. Strawland ZIMMOAH
PT. PUNGKOOK INDONESIA OME PT. SERIM INDONESIA

KPCM

+62 811-9966-903 (Mr Han)
kpcidhan@gmail.com
kpcm.co.id

순다 해협서 기자 등 8명 태운 선박 실종 이틀째… 수색 범위 확대에도 '난항'

- 화산재 분출 속 군·경·바사르나스 총동원… 여전히 흔적 못 찾아
- 크라카타우산 인근 해역서 함정·드론 투입 입체 수색 계속



합동 수색구조팀 Tim SAR 이 순다 해협에서 연락이 두절된 8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Foto: Dok. Tim SAR Gabungan)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Sunda Strait) 일대에서 취재진과 선박 승무원 등 총 8명이 탑승한 스피드보트가 연락 두절된 지 이틀째를 맞았으나, 당국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수색·구조 당국은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 수색 구역을 대폭 확대하며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Basarnas) 등에 따르면, 지난 2026년 9월 9일(현지시간) 오후까지 진행된 이틀차 합동 수색·구조(SAR) 작전에서 실종자 8명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 실종 상태인 인원은 스피드보트 선장 와르타(Warta·55) 씨, 선원 수라크만(Surakman·60) 씨, 현지 가이드 헤리얀토(Heriyanto·49) 씨를 비롯해 현장 취재에 나섰던 기자 5명이다. 실종된 기자는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사 안타라(Antara) 소속 M. 바구스 코이르누나스(M. Bagus Khoirunnas) 기자를 포함해 메르데카(Merdeka)의 아리 바수키(Ari Basuki), iNews의 유디스(Yudhis), 튀르키예 아나돌루(Anadolu) 통신의 다우스(Daus), 프리랜서 기자 도날(Donal) 등으로 확인됐다.

바사르나스를 중심으로 군(TNI), 경찰(Polri), 재난관리청(BPBD)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SAR팀은 아낙 크라카타우(Anak Krakatau) 화산 인근 해역과 순다 해협 곳곳의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수색을 전개하고 있다.

알 암라드(Al Amrad) 반텐 구조·구난청장은 "작전 2일차를 맞아 수색 구역을 넓히고 투입 인력을 여러 수색구조단위(SRU)로 분할 배치해 각 섹터별 집중 수색을 진행했다"며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과 장비를 최적화하여 8명의 실종자를 찾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넓은 해역을 체계적으로 훑기 위해 해상 및 공중 전력을 구역별로 분산 배치했다. 국가구조선(KN) 'SAR 테투카(Tetuka) 247' 호는 제2구역에서 총 68.3해리(NM)를 수색했으며, 해군 함정 'KAL 안예르(Anyer)' 호 역시 동일 구역에서 69.5NM에 달하는 범위를 정밀 수색했다.

또한 반텐 및 람풍 소속의 고속단정(RIB 02, RIB 03)들이 제1구역의 67NM 해역을 비롯해 세베시(Sebesi) 섬, 세부쿠(Sebuku) 섬, 크라카타우 일대에서 육안 감시와 수색을 병행했다. 경찰 경비정(KP) '산자야(Sanjaya)' 호는 제4구역에서 67.3NM를 탐색했으며, 인도네시아 해군 소속 함정인 'KRI 레우세르(Leuser)' 함과 'KRI 레푸(Lepu)' 함도 지정된 해역에 배치돼 입체적인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현장의 기상과 환경적 제약은 구조 작업의 주요 난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날 오후 1시 31분경(WIB 기준) SRU 1팀이 수색 지도 좌표를 기반으로 작업을 이어가던 중,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에서 짙은 화산재가 대거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 관측됐다.

알 암라드 청장은 구조 대원들의 안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활동성을 실시간으로 주시하고 있다"며 "짙은 화산재 분출 등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현장 여건에 맞게 수색을 탄력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집중적인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기 시작한 오후 5시 7분까지 실종자 및 선박의 파편 등 관련 흔적은 일절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수색 범위를 순다 해협 외곽으로 한층 더 넓히고, 조류와 바람의 방향을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해 작전 계획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작전에는 군·경 및 유관 기관 외에도 실종자 가족, 현지 어민, 주민 자원봉사자 등이 대거 동참하고 있으며, 열화상 감시 드론과 전문 의료·통신 장비 등이 총동원되고 있다.

알 암라드 청장은 "현재까지의 공식 수색 결과는 '발견 사항 없음(Nil)' 이지만 우리는 결코 수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모든 상황 변화를 정밀하게 평가해 다음 작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실종된 8명 모두가 하루빨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아낙 크라카타우 취재 중 실종된 기자 일행 수색 난항… 인근 해역서 구명조끼 발견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활동을 취재하던 중 연락이 끊긴 취재진 5명과 선박 승무원 3명 등 총 8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1일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합동수색구조팀은 실종 4일 차를 맞아 해상과 공중에서 수색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 각 유관 기관에서 차출된 300명 이상의 인력과 최소 11척의 선박이 투입돼 총력 수색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색 3일째였던 지난 10일 오후 3시 10분경, 반튼주 안예르 인근 서부 시콘응-라부안 해역에서 표류 중이던 구명조끼 1벌이 해군 수색팀에 의해 인양됐다. 발견 지점은 안예르 서쪽으로 약 7.05해리 떨어진 해역으로, 실종 선박의 마지막 확인 위치(LKP)로부터 약 10~12해리 반경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해군 공보실장(Kadispenal) 툰굴 제독은 이번 구명조끼 수거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도, 해당 물품이 실종자들의 것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툰굴 공보실장은 현지 언론 안타라 통신을 통해 "발견된 구명조끼에 별도의 신원 확인 표시가 없어 현재 연락이 두절된 기자단과 선원들이 착용했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군과 합동팀은 해당 유류품과 실종자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 조사와 추가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색팀은 현장에서 구명조끼 외에도 흰색 원통형(병 모양) 물품 1점을 함께 발견했으나, 이는 인근 어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품으로 추정돼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합동수색구조팀은 발견된 구명조끼의 유류 경로를 추적하는 등 관련 단서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반텐주 안예르 인근 해역인 치코넹-라부안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TNI AL) 장병들에 의해 발견된 구명 조끼. (10/9/2026). (Humas TNI AL)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환자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원"

미르 한의원
MI-REU CLINIC
신속한 효과 • 세심한 진료

■ 진료과목
– 목,허리통증및 디스크
– 어깨,무릎,팔,다리 관절및 근육통
– 소화기,호흡기,심혈관 질환
– 성장탕,총명탕(수험생)
– 허약체질,피로회복,면역강화
– 갱년기,자궁근종,갑상선,일체냉증
– 화병,우울증,공황장애

진료시간
월–금 9:30~6시
토요일 10:30~4시
점심 : 12시~1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085694537974
INDO-TCM
미르한의원
(Mireu-tcm)
TALK
Mireu-tcm

Grand Wijaya Centre Blok C 37 Lantai 1
Jl. Wijaya II, Kel. Pulo, Kec.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자카르타 LRT 클라파 가딩-망가라이 노선, 시범 요금 '8루피아' 책정… 정식 개통 일정은 조율 중

자카르타 수도권 주정부(Pemprov DKI Jakarta)가 자카르타 경전철(LRT) 클라파 가딩-망가라이 노선의 시범 운행 요금을 1인당 단 8루피아로 책정했다. 공식 상업 운전을 앞두고 대중 홍보와 이용 장려를 위해 마련된 파격적인 상징 요금이다. 다만 노선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음에도 구체적인 공식 개통 일정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다.

프라모노 아눙 위보워 자카르타 주지사는 8일(현지 시간) 타만 이스마일 마르주키에서 열린 공공질서유지국(Satpol PP) 창설 기념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식 개통식 전까지 시범 운행 기간 동안 모든 승객의 이용 요금을 8루피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이어 "8루피아라는 상징적 금액은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의 축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식 개통 이후에는 일정 기간 균일 요금제가 도입된다. 주정부는 공식 개통 후 약 1~2개월간(2026년 10월경까지) 5,000루피아의 균일 요금을 적용한 뒤 정식 요금 체계를 평가·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정부의 재정 보조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별 요금 체계 신설이 검토되고 있으며, 기존 15개 교통 취약 계층에 대한 무료 탑승 혜택은 유지된다.

클라파 가딩-망가라이 구간의 본선 및 주요 궤도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당초 지난 8월 26일 개통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최종 점검과 일부 부대시설 보완, 하부 구간 정비 및 녹화 작업 등을 이유로 일정이 순연됐다.

현재 정식 개통 일정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최종 조율 중이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대통령궁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참석 일정이 확정되는 당일까지는 개통일을 미리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번 신규 노선이 수도권 대중교통망 확충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노선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통근열차(KRL) 운행 시간표와 연계해 운행될 예정이며, 하루 평균 7만~8만 명의 승객 수송을 목표로 한다.

주정부 관계자는 "본선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정식 개통을 위한 막바지 환경 개선 작업이 한창"이라며 "클라파 가딩과 망가라이의 연계성 강화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을 촉진해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자카르타 대기질, 세계 최악 2위 기록… 시민 대상 '마스크 착용·외출 자제' 권고



Kondisi udara berpolusi di Ibu Kota Jakarta. (Foto: Istimewa)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오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되며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공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자카르타의 공기질지수(AQI)는 170을 기록해 '건강에 해로움(Unhealthy)' 단계로 분류됐다. 주요 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입방미터당 82마이크로그램(㎍/㎥)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대기 상태는 일반인은 물론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등 민감군, 동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식물 손상 및 시야 저하 등 환경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AQI 기준 0~~100은 '보통'으로 분류되지만, 200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대다수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건강에 해로움', 300~500에 이르면 심각한 보건 위협을 초래하는 '위험' 단계로 지정된다.

아이큐에어 측은 자카르타의 심각한 대기오염 상태를 경고하며 시민들에게 실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오염된 외부 공기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정과 사업장 내 창문을 닫고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오전 기준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열악한 도시는 이라크 바그다드(AQI 178)로 집계됐다. 자카르타(170)에 이어 방글라데시 다카(16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63), 베트남 호찌민(157) 등이 그 뒤를 이으며 아시아 주요 대도시들의 대기오염 문제가 두드러졌다.

한편, 악화하는 공기질에 대응하기 위해 자카르타특별주 정부(Pemprov DKI Jakarta)는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구물리청(BMKG)과 협력하여 '대기질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오염 수치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고,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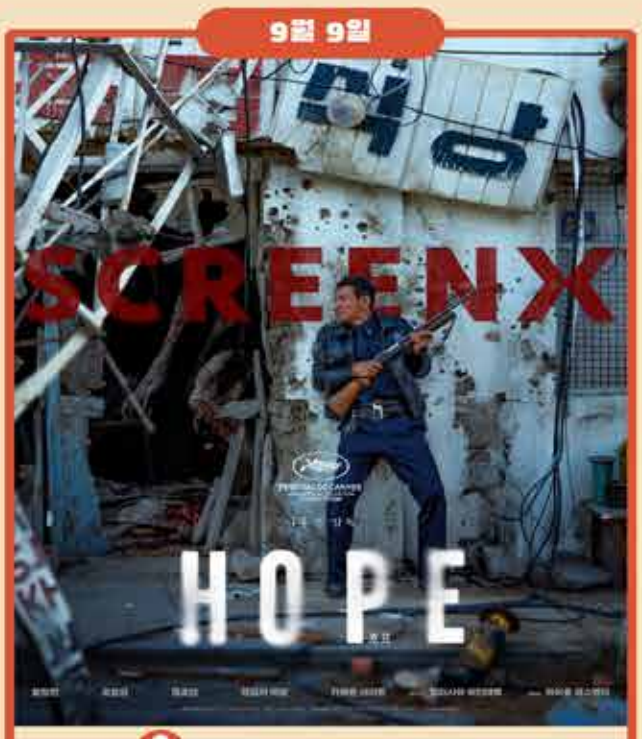
coway
TALK
한인기업 특별 상담
0811-9294-114

CGV | 2026년 9월 15일 ~ 21일

영화 그 이상의 감동

이번 주 상영!

9월 9일



*미스터리
*작은 항구 도시 외곽에서 미스터리한 발견이 일어난다. 주민들은 이전에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존재에 맞서 살아남아야 한다.
*4DX와 SCREENX 포맷 관람 가능

9월 17일



*호러
*네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발리 본섬이 숨듦 방문하고 성스러운 날 동안 네 가지 신성한 금기를 어긴다.

9월 20일



*음악
*오랫동안 기다려온 NCT 127의 컴백 투어. 서울에서 NEO CITY의 새로운 장을 연다.





커밍 쑨 in CGV

9월 23일





*액션
*지구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 후, 살아남은 어벤저스 멤버들이 우주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모인다.
*4DX와 SCREENX 포맷 관람 가능

10월 12일



*음악
*블랙핑크의 활동이 잠시 중단된 후, LISA가 첫 솔로 활동을 시작한다. LISA가 데뷔 솔로 앨범 'Alter Ego'를 작사하고 녹음하며 발매하는 여정을 담았다.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지금 예매하세요!

자바해 여객선 '버고 트랜스포트 8호' 침몰… 사망 6명·실종 130명



Kapal Virgo Transport 8 di Laut Jawa. (dok.Basarnas)

인도네시아 자바해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버고 트랜스포트 8호(Virgo Transport 8)' 침몰 사고와 관련해 당국의 대대적인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Basarnas)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107명이 구조되었으며, 13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푸투 수다야나(I Putu Sudayana) 반자르마신 A급 수색구조사무소장은 13일(현지 시간) 서면 성명을 통해 "중부 인도네시아 표준시(WITA) 기준 오후 2시 56분 현재 실종자 130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사고 선박인 버고 트랜스포트 8호는 이날 승객 213명과 승무원 30명 등 총 243명을 태우고 수라바야를 출발해 남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으로 향하던 중 침몰했다.

사고 직후 인근 해역을 지나던 선박들이 구조 작업에 동참했다. 예인선 'TB 마우하우 9호'가 생존자 15명과 사망자 1명을 수습했으며, 또 다른 예인선 'TB TCP호'는 생존자 33명과 사망자 5명을 구조·인양했다. 아울러 상선 'MV 하이다호' 역시 탑승객 49명을 전원 무사히 구조했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국가수색구조청을 비롯해 해군(TNI AL), 해양경찰(Polairud), 항만청, 소방대, 적십자사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280여 명의 합동 구조 인력이 투입되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푸투 수다야나 소장은 "현재 작전의 최우선 과제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130명을 신속히 수색·구조하는 것"이라며 "최신 조류 및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색 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호주 국적 남성과 두 자녀, 발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 현지 경찰 수사 착수



발리주 바둥군 쿠타 레기안 쓰리 브라더스 거리의 한 방갈로에서 호주 국적 남성 SDJ(56)와 두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했다. (Polresta Denpasar.)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휴양지인 발리에서 호주 국적의 50대 남성과 그의 어린 두 자녀가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덴파사르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14분경 발리주 바둥군 쿠타 레기안 쓰리 브라더스 거리의 한 방갈로에서 호주 국적 남성 SDJ(56)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두 자녀 ADS(7), LKS(4) 등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은 자카르타에 거주 중인 피해자의 아내가 방갈로에 머물던 남편 및 아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지인에게 현인 확인을 부탁하면서 드러났다. 부탁을 받은 목격자와 숙소 관계자는 방갈로 내부에서 인기척이 없자 지역 주민 대표 및 인근 주민들과 함께 잠긴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문이 열렸을 당시 SDJ는 창문 쇠창살에 다리미 전선을 이용해 목을 맨 상태였으며, 7세와 4세 된 두 자녀는 방바닥에 포개져 쓰러진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덴파사르 경찰 감식반은 현장 감식과 시신 외표 검사를 진행했다. 레오나르도 D. 시마투팡 덴파사르 지방경찰청장(총경)은 공식 성명을 통해 "초기 조사 및 시신 검사 결과, 두 자녀는 물리적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부친인 SDJ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 구의 시신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덴파사르 소재 응우라 국립중앙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자세한 가족 관계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내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숨진 남성이 호주 국적자인 점을 고려해 관할 호주 영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 경영센터 종합)

프로축구 페르시자 자카르타 구단, 韓 '홍삼볼'과 공식 파트너십 체결… 2026/2027 시즌 향한 '에너지 동행' 시작

- 유니폼 후면 로고 부착 및 '공식 에너지 드링크' 독점 공급 협약
- 9월 2일부터 1년간 지속… 훈련장·경기장 전반서 전방위적 브랜드 노출
- 무카페인 K-에너지 드링크의 현지화… 팬덤 '작마니아' 연계 마케팅 및 CSR 전개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프로축구의 유서 깊은 명문 구단 페르시자 자카르타(Persija Jakarta)가 2026/2027 슈퍼리그를 앞두고 구단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스폰서십 확대를 위해 한국의 건강 에너지 음료 브랜드 '홍삼볼'과 손을 맞잡았다.

페르시야 구단은 지난 9월 11일 공식 기자회견과 유니폼 발표 행사를 열고, 대한민국 무카페인 건강 에너지 드링크 제조사인 '홍삼볼(Hongsam Ball)'과 2026/2027 시즌 공식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홍삼볼은 2026년 9월 2일부터 1년간 페르시야 구단의 '공식 에너지 드링크 파트너(Official Energy Drink Partner)'로서 구단과 동행한다. 홍삼볼의 공식 수입·유통 법인인 PT Cinta Korea Indonesia 산하 브랜드로서 선수단 유니폼 후면에 브랜드 로고를 부착하게 되며, 매주 열리는 정규 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훈련 캠프 전반에 걸쳐 제품 공급과 브랜드 노출을 이어갈 예정이다.

■ "에너지와 열정의 결합"… 자연스럽게 맞닿은 양측의 비전

이날 열린 공식 발표회는 홍삼볼 로고가 새겨진 2026/2027 시즌 신규 유니폼을 공개하는 포토세션으로 포문을 열었다. 현장에 참석한 구단 인사들과 기자단은 새로운 유니폼 디자인에 대해 "구단의 전통과 세련된 스폰서십의 결합"이라며 호평을 보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는 인도네시아 내 수많은 식음료 브랜드 중 한국의 홍삼 브랜드를 낙점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구단 측은 "페르시자와 홍삼볼은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근성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양측의 공통된 정체성에서 출발한 자연스러운 결실임을 강조했다.

모하마드 프라판차(Mohamad Prapanca) 페르시자 회장은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페르시자의 새로운 여정에 홍삼볼이 합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협력의 진정한 가치는 비전과 열정이 일치할 때 발현된다. 수백만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라는 거대한 에너지와, 제품을 통해 건강한 활력을 전하고자 하는 홍삼볼의 열정이 만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 韓 홍삼 문화의 현지화… "인도네시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로 도약할 것"

페르시자의 공식 에너지 파트너로 낙점된 홍삼볼은 한국홍삼을 주원료로 하되 카페인을 0%로 낮춘 혁신적 건강 에너지 드링크다. 인위적인 자극 대신 홍삼 본연의 활력을 공급함으로써, 격렬한 스포츠 활동은 물론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차세대 에너지 대안을 표방하고 있다.

홍삼볼 인도네시아 대표를 맡고 있는 송창근 회장은 현지 취재진을 향해 한국의 독특한 인삼 문화와 음료의 개발 철학을 설파했다. 송 회장은 "한국인들이 매 끼니 김치를 먹듯, 어릴 적부터 건강과 활력의 근원으로 인삼을 자연스럽게 접해왔다"면서 "이러한 '에너지 부스터(Energy Booster)'로서의 문화적 유산을 인도네시아 사회에도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홍삼볼이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찾는 일상 속 음료로 자리 잡아,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강한 투지와 속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활력의 원천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당당한 '큰 어른(Big Chief)'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돕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명문 구단 Persija Jakarta 모하마드 프라판차 회장과 홍삼볼 인도네시아 송창근 회장은 페르시자 홍삼볼 유니폼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9.11. 사진 한인포스트

■ 팬덤 '작마니아'와 호흡하는 전방위적 활성화 및 사회공헌 예고

홍삼볼 측은 단순한 로고 부착 방식의 소극적 후원에 머무르지 않고, 구단의 핵심 동력인 서포터즈 '작마니아(Jakmania)' 및 지역 축구 커뮤니티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격적인 마케팅(Activation)을 전개할 계획이다.

향후 경기장 내외에서 대규모 시음 행사를 상시화하여 팬들이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고 자발적인 앰버서더(홍보대사)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카르타 및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력을 창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스포츠 산업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송 회장은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에너지는 단순한 물리적 효율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에서 나온다. 페르시야와 함께 자카르타 전역에 지치지 않는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구한 역사와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축구 명문 페르시자와 K-헬스케어의 대표 주자인 홍삼볼의 이번 결합은, 2026/2027 시즌 인도네시아 프로축구계에 새로운 상업적·문화적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로축구 구단 Persija Jakarta 모하마드 프라판차 회장과 홍삼볼 인도네시아 송창근 회장은 스폰서 계약을 하고 있다. 2026.9.11. 사진 한인포스트



프로축구 구단 Persija Jakarta 모하마드 프라판차 회장과 홍삼볼 인도네시아 송창근 회장은 페르시자 홍삼볼 슬로건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9.11. 사진 한인포스트

12개국 2,700여 명 무용수, 안촐 해변 수놓다…
베타위 전통 무용 '스마락 잘리잘리' MURI 신기록 달성

'제5회 2026 인도네시아 국제 문화 페스티벌(IICF)' 성료… 문화 교류 및 관광 활성화 기여



지난 9월 12일, 북자카르타 안촐 타만 임피안의 '심포니 오브 더 씨(Symphony of the Sea)' 일대에서 열린 '2026 인도네시아 국제 문화 페스티벌(IICF)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전통 무용이 전 세계 예술인들의 손을 거쳐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지난 9월 12일, 북자카르타 안촐 타만 임피안의 '심포니 오브 더 씨(Symphony of the Sea)' 일대에서 열린 '2026 인도네시아 국제 문화 페스티벌(IICF)'에서 베타위 전통 무용인 '타리안 스마락 잘리잘리(Tarian Semarak Jali-Jali)' 합동 공연이 인도네시아 세계기록박물관(MURI) 신기록을 경신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개최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한국, 미국, 러시아, 폴란드, 몽골,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 12개국에서 총 2,713명의 무용수가 참여했다. 대규모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선보인 웅장한 군무는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인도네시아 문화색채재단(Yayasan Warna Budaya Indonesia)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관광부, 내무부, 문화부, LPDP, 다나 인도네시아나, 자카르타 수도특별구(DKI Jakarta) 주정부, 자룸 재단 및 타만 임피안 자야 안촐 등 주요 기관들의 전폭적인 후원 속에 치러졌다.

PT 쁨방우난 자야 안촐의 다니엘 빈드리아트모코(Daniel Windriatmoko) 기업 홍보 담당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안촐은 누산타라(인도네시아 군도)의 풍부한 전통을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협력의 장으로서 이번 페스티벌을 지원했다"라며, "세계 각국의 참여로 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고, 대중과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축제 현장에서는 기록 경신 행사 외에도 국제 무용 경연대회, 해변 퍼레이드 경연대회, 사생대회,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IOFF) 소속 국제 심사위원단이 참여해 공신력을 더했으며, 현지 중소기업(UMKM) 제품 전시 및 바자회가 함께 운영되어 지역 창조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12일, 북자카르타 안촐 타만 임피안의 '심포니 오브 더 씨(Symphony of the Sea)' 일대에서 열린 '2026 인도네시아 국제 문화 페스티벌(IICF)

다니엘 담당은 "이번 페스티벌은 예술과 문화, 지식이 융합된 양질의 경험을 대중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안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카르타 안촐이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경찰대학교(STIK-PTIK) 51기, 태권도로 '정예 경찰 간부' 육성

- 윤유중 사범, 27년째 지도 이어가… 51기 총 376명 수련 돌입
- 여성 경찰 35명 포함 역대급 규모… 한 · 인니 체육 · 교육 교류 상징으로 자리매김



인도네시아 경찰대학교(STIK-PTIK)의 제51기 교육생들이 태권도 교육을 받고 단체 촬영. 2026.9.3. 사진 경찰대학교

인도네시아 국립경찰(Polri) 산하 최고 명문 교육기관인 경찰대학교(STIK-PTIK)의 차세대 경찰 간부들이 한국의 전통 무도인 태권도를 통해 강인한 체력과 인성을 겸비한 '강한 경찰'로 거듭난다.

STIK-PTIK은 지난 3일, 제51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도복 전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수련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7년 동안 현지에서 태권도를 지도해 온 윤유중 사범이 에코 수다르토(Eko Sudarto) STIK-PTIK 학장에게 태권도 도복과 명예단증을 직접 전달하며 교육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1946년 설립된 STIK-PTIK은 경찰 행정과 치안 관리, 범죄학 등 경찰학 전반을 아우르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경찰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번 51기 태권도 수련에는 석사(S2) 과정 281명과 학사(S1) 과정 95명 등 총 376명의 정예 간부 후보생들이 참여한다. 특히 여성 경찰(Polwan) 35명이 포함되는 등 예년에 비해 참여 인원이 대폭 증가해, 현지 경찰 간부 교육 과정 내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와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교육생들은 향후 1년간 체계적인 태권도 수련을 받게 된다. 기본 품새 및 격투 기술, 체력 단련은 물론 절제와 인내, 존중, 리더십 등 치안 현장의 지휘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정신 역량을 함양할 예정이다.

지난 1999년부터 STIK-PTIK에서 지도 편달을 이어오고 있는 윤유중 사범은 수많은 고위 경찰 간부를 길러낸 현지 태권도 교육의 산증인이다. 윤 사범은 "태권도는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스스로를 절제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숭고한 정신 교육"이라며, "이번 수련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찰 간부들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강인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4반세기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STIK-PTIK의 태권도 교육은 한국의 국기(國技)를 인도네시아 최고 엘리트 경찰 양성 과정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치안 무도 교육을 넘어 양국 간 스포츠 및 공공외교 교류를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동포사회부/ 편집부 종합)



인도네시아 경찰대학교(STIK-PTIK)에서 윤유중 사범(왼쪽)이 에코 수다르토(Eko Sudarto) STIK-PTIK 학장에게 태권도 도복과 명예단증을 전달하고 있다. 2026.9.3. 사진 경찰대학교

발리 젬브라나 해변서 고래상어 좌초… 경찰, 주민 접근 통제 나서

인도네시아 발리섬 서부 젬브라나의 한 해변에서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로 추정되는 대형 해양생물이 좌초돼 현지 경찰이 긴급 통제에 나섰다. 12일(현지 시각) 젬브라나 경찰서 산하 프쿠타탄 파출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경 프쿠타탄면 펑어라고안 마을 인근 해변에 대형 해양생물이 떠밀려와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군중이 몰려들어 생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구조 작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현장에 출동, 주변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의 초기 육안 관찰 결과, 해당 동물은 크고 긴 체형에 뚜렷한 등지느러미가 있으며, 어두운 바탕 표면에 특유의 흰색 점과 줄무늬가 배열되어 있어 고래상어(Rhincodon typus)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확한 종 식별과 건강 상태 등은 해양생물 전문 기관의 정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베냐민 니키줄루우 프쿠타탄 파출소장(경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동물을 끌어당기거나 때리고, 올라타거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등의 자의적인 행동을 일체 삼가달라"고 주민들에게 강력히 당부했다.

이어 "해양생물 처리에는 관련 보전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주민들을 설득하며 인도적인 방식으로 현장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마을 당국 및 유관 전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보존에 집중하는 한편, 전문 기관 인력과 함께 해당 생물의 생존 여부 확인 및 사체 수습 또는 방류 등 향후 처리 방안을 신속히 논의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발리 젬브라나군 펭에라고안 해변에 좌초된 고래상어 (12/9/2026 Polres Jembrana.)

한국 비보잉팀 '와일드 크루', 자카르타서 한국 비보잉의 매력 선보여

「Rhythm of K-Street」, 한국 비보잉 공연부터 한 · 인니 배틀 · 워크숍까지 9월 5일 KOREA 360 공연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이상전)이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가 후원한 「Rhythm of K-Street」 비보이 공연이 지난 9월 5일(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청년예술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의 스트리트 댄스 공연예술을 인도네시아에 소개함으로써 한국 공연 예술에 대한 현지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에서 초청된 와일드 크루(WILD CREW)는 비보잉 댄서 3명과 비트박서 1명으로 구성되어, 역동적인 비보잉 퍼포먼스와 비트박스를 선보이며 스트리트 댄스 특유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매력을 현지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특히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즉흥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무대와 객석이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펼쳤다.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 비보잉팀을 초청한 댄스 배틀을 진행하여 양국의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비보이들이 각자의 스타일과 기술을 선보이며 서로의 퍼포먼스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스트리트 댄스를 매개로 한 양국 청년예술인 간의 쌍방향 문화예술 교류를 이끌어냈다.

이번 「Rhythm of K-Street」는 공연 관람에 그치지 않고, 9월 6일(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에서 비트박스 및 비보잉 워크숍을 개최하여 참가자들이 한국의 스트리트 공연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와일드 크루 멤버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비티박스의 기본적인 리듬과 발성 방법, 비보잉의 기본 동작과 안무 등을 지도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의 공연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한국 예술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새롭고 뜻깊은 경험이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예술 교류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포스터 1부. 끝.

티파니 영, 솔로 데뷔 10주년 기념 아시아 투어 개최… 9월 19일 자카르타 달군다



Poster konser Tiffany Young. Flabbergast Productions

가수이자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티파니 영이 아시아 투어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 만난다. 공연 주최사인 플래버개스트 프로덕션(Flabbergast Productions)과 에어렌델 웍스(Earendel Works)에 따르면, 티파니 영은 오는 2026년 9월 19일 오후 7시(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IEXPO 시어터에서 'Tiffany Young: Edge of Calm Tour in Jakarta'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티파니 영의 솔로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아시아 투어의 주요 일정 중 하나다. 투어는 9월 12일 홍콩을 시작으로 자카르타, 싱가포르, 타이베이, 호치민, 방콕을 거쳐 대한민국 서울로 이어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티파니 영의 솔로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자카르타 팬들과 다시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티파니 영은 과거 솔로 데뷔 당시 빌보드 '넥스트 빅 사운드' 차트 5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솔로 브레이크아웃' 부문을 수상하고 북미 18개 도시 투어를 성료한 바 있다. 또한 뮤지컬 '시카고', '유미의 세포들' 등에 출연하며 보컬리스트와 뮤지컬 배우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왔다.

이번 자카르타 공연은 2026년 8월 발매된 티파니 영의 솔로 앨범 서사를 무대화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총 11곡으로 구성된 신보의 성장과 변화를 담아내며, 투어 밴드와 함께하는 라이브 편곡을 비롯해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스타일링, 시각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대에서는 앨범의 대표곡인 'Edge of Calm', 'Summer's Not Over', 'Come Call Me Yours', 'Moment' 등이 라이브로 연주된다. 공연장은 약 2,500석 규모의 JIEXPO 시어터로 확정되어 아티스트와 관객 간의 친밀한 교감을 예고하고 있다.

공연 티켓은 공식 예매처인 '로켓(LOKET)'을 통해 판매된다. 좌석 등급은 VIP(325만 루피아), R(255만 루피아), S(200만 루피아), A(145만 루피아), B(95만 루피아) 등 총 5개 등급으로 나뉜다.

티켓 구매 관객에게는 등급별로 다채로운 팬 혜택이 제공된다. 하이터치(Hi-Bye) 세션, Q&A 세션, 사운드체크 관람, 친필 사인 랜야드, 도시 한정 및 공식 포토카드, 공식 포스터, 머천다이즈 우선 구매 권한 등이 차등 제공된다. 특히 추첨을 통해 선정된 행운의 관객에게는 향후 서울에서 열리는 티파니 영의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골든 티켓'이 주어질 예정이어서 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오케이 치과 병원

ROYCE
ROYCE DENTAL GROUP

OK Dental Clinic



로이스치과
공식 모델 정준호

1 한국-인도네시아 협진 시스템
Korea-Indonesia Collaboration System

2 임플란트-최소절개시술
Implant -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3 찌까랑 지점 오픈

OK치과가 특별한 이유

- ROYCE 본원 협진 시스템
-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 개인 맞춤 치료 플랜
- 사후관리 및 한국 연계 진료 지원

Monday - Friday = 10:00AM - 19:00PM
Saturday = 09:00AM - 17:00PM

OK Dental Clinic

자카르타 주소 (Jakarta)
Blok C, Jl. Wijaya II No.38, Rt.6/Rw.1
Pulo, South Jakarta 12160

찌까랑 주소 (Cikarang)
K-Eduplex Jl. Ganesha 2, Lot B1,
Deltamas, Pasirranji, Cikarang Pusat, Bekasi

문의 : Tel : 021-720-1779 HP : 0821-2255-7980 Email : okdental02@gmail.com

AI가 재편하는 인도네시아 콘텐츠 시장

거대한 디지털 시장이 만든 AI 콘텐츠 확산의 기반과 IP 보호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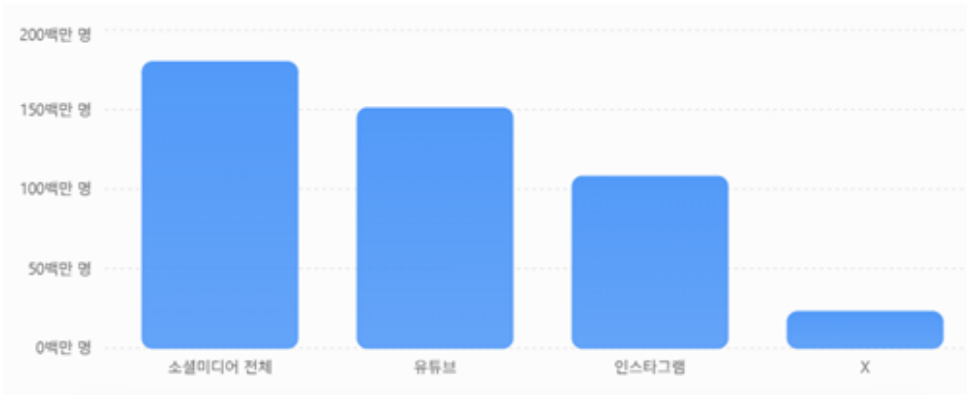
거대한 디지털 시장, AI 콘텐츠 확산의 기반이 되다

< 인도네시아 디지털경제 주요 지표(2025) >

구분	주요 수치	의미
인터넷 이용자	약 2억 3,000만 명	대규모 디지털 콘텐츠 소비 기반
소셜미디어 이용 계정	약 1억 8,000만 개	플랫폼 중심 확산 구조
디지털경제 총거래액(GMV)	약 990억 달러	동남아 최대 디지털경제
온라인 미디어 시장	약 90억 달러	광고·게임·VOD·음악 성장
비디오커머스 거래	26억 건(+90%)	콘텐츠와 상거래 결합 가속

[자료: DataReportal(Digital 2026: Indonesia), Google·Temasek·Bain & Company(e-Conomy SEA 2025)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인도네시아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광고 도달 규모>



*주 : 2025년 말 기준 주요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전체 이용 계정 규모, 플랫폼 수치는 광고 도달 가능 이용자로 실제 월간 활성이용자 수와 다를 수 있음.
[자료: DataReportal(Digital 2026: Indonesia)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디지털경제이자 대규모 소셜미디어 시장을 갖추고 있다. 모바일 중심의 숏폼과 라이브커머스가 빠르게 늘면서 콘텐츠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는 수요가 커졌고, 이 자리를 생성형 AI가 새로운 제작 도구로 채우고 있다.

Google·Temasek·Bain & Company에 따르면 2025년 인도네시아 디지털경제 총거래액(GMV)은 약 990억 달러로 추산됐다. 비디오커머스 거래량은 전년 대비 90% 늘어난 26억 건, 판매자와 온라인 점포는 75% 증가한 약 80만 개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영상·광고·상품정보를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의 소셜미디어 이용 계정은 약 1억 8,000만 개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광고 도달 가능 이용자도 각각 약 1억 5,100만 명, 1억 800만 명에 달한다. 이만큼 큰 플랫폼 이용 기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AI 콘텐츠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퍼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접근성이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다. 플랫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유사·모방 콘텐츠 역시 단기간에 대량으로 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AI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원본 IP를 가려내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개인화에서 제작공정까지, AI 활용이 현실이 되다

생성형 AI가 가져온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제작 시간과 반복 작업의 감소다. 이제 개인은 전문 장비 없이도 이미지·영상·음성을 만들 수 있고, 기업은 원본 하나를 숏폼·광고·현지어 자막과 더빙으로 빠르게 재가공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활용이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은 물론 방송사의 실제 제작 공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스프라이트(Sprite)는 온라인 소비자 참여를 오프라인 구매로 연결하는 인도네시아 마케팅 기술기업 그리비(Grivy)와 함께 라마단 'HAUS' 캠페인을 진행했다. 와룽(Warung, 인도네시아 전통형 소형 길거리 매장) 매장주가 사진을 등록하면, 배우 디안 사스트로와르도요(Dian Sastrowardoyo)와 코미디언 하지 볼롯(Haji Bolot)이 함께 등장하는 맞춤형 배너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비는 이를 AI 기반 개인화 사례로, 코카콜라 인도네시아는 AR 매장 배너로 각각 소개했다. AI와 AR이 소규모 매장과 소비자의 콘텐츠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로 꼽힌다.

AI 활용은 마케팅을 넘어 방송 제작 공정으로도 번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엠텍 그룹(Emtek Group)과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가 2026년 공개한 '스튜디오 오브 더 퓨처(Studio of the Future)'다. 엠텍이 개발한 비디오젠(VidioGen)은 제미나이(Gemini)·비오(Veo)·이마젠(Imagen)을 활용해 시각 자산 생성과 장면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반복 작업을 줄인다.

대표 적용 사례는 기존 인기 애니메이션을 재제작한 「뉴 켈루아르가 소맛(New Keluarga Somat)」이다. 구글 클라우드에 따르면 비디오젠으로 시각 자산 제작과 장면 배치를 간소화해, 원작의 이야기와 인간 중심의 창작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개발 시간과 비용을 약 30% 줄였다. 생성형 AI가 장기 편성용 로컬 애니메이션 제작에까지 도입된 사례다. 이처럼 AI는 제작의 문턱을 낮추지만, 그만큼 인기 캐릭터나 창작 스타일을 닮은 이미지, 음성·얼굴 합성물을 만드는 일도 쉬워진다. 이에 따라 단순한 불법복제를 넘어, 원본과 유사 콘텐츠, 실제와 합성 콘텐츠의 경계가 흐려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범용 콘텐츠의 생산비용이 낮아질수록 독창적인 캐릭터와 서사, 세계관, 브랜드 정체성은 오히려 희소한 자산이 된다. 동시에 얼굴·음성·창작 스타일처럼 기존 저작권 체계만으로는 보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디지털 정체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활용 확산과 함께 드러난 창작자·진위 문제

콘텐츠의 진위 문제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청(OJK) 산하 사기대응반(Satgas PASTI)은 2025년 보이스 클로닝과 얼굴 합성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통신디지털부도 같은 해 AI 사기 피해 신고액이 약 7,000억 루피아(약 60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얼굴·음성 복제를 경고했다.

딥페이크 확산은 콘텐츠의 진위와 개인의 얼굴·음성에 대한 권리 문제를 드러낸다. 이에 따라 보호 대상도 완성된 저작물에서 창작 스타일과 디지털 페르소나, 콘텐츠의 출처와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넓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AI 육성과 창작자 보호의 균형 모색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인도네시아는 저작권과 AI 거버넌스 정비에 나서고 있다. 2026년 저작권법 개정 논의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AI 학습을 위한 기존 저작물 이용, 플랫폼 책임과 투명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닌 만큼, 이를 현행 규제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AI를 제한하기보다 활용과 창작자 보호를 함께 끌고 가는 쪽을 선택했다. 창조경제부는 AI 윤리 교육, 활용 가이드라인, AI 샌드박스를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총국(DJKI)도 AI 보조 창작물의 독창성과 인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4단계 기준을 소개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인도네시아는 로컬 창작자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IP와 디지털 정체성을 보호하는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저작권법 개정과 플랫폼 정책, AI 생성물 표시 기준이 바뀌면 한국 기업의 제작·유통·라이선싱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는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인터뷰에서 현지 콘텐츠 기업 관계자 A씨는 AI 활용으로 제작 기간과 비용은 줄었지만, 원천 IP의 캐릭터·구성·스토리를 모방한 유사 콘텐츠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유사 콘텐츠는 만들고 퍼뜨리기는 쉬운 반면, 대규모로 확산되기 전까지는 권리자가 그 존재 자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결국 침해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원천 IP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시사점

스프라이트와 비디오젠(VidioGen) 사례는 AI가 개인화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 공정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AI 콘텐츠의 확산은 창작자 보호와 콘텐츠 신뢰성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함께 안기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플랫폼 이용 기반과 분산된 시장 구조는 AI를 활용한 대량 개인화와 저비용 제작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침해·합성 콘텐츠가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유통되면, 권리자가 이를 찾아내고 대응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한국 콘텐츠 기업은 AI 활용과 IP 보호를 하나의 사업 관리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지 계약에서 원본의 AI 학습 허용 여부,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배우·성우의 얼굴·음성 사용 범위와 AI 표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핵심 IP의 현지 권리를 미리 확보하고, 플랫폼별 모니터링 범위를 설정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인도네시아 AI 콘텐츠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AI 도구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다. 독창적인 IP를 확보하고, 인간의 창작 기여와 데이터·초상·음성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콘텐츠 유통 이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경쟁력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

자료: Google·Temasek·Bain & Company(e-Conomy SEA 2025), DataReportal, 인도네시아 창조경제부, WIPO, 인도네시아 법무부, Mentari TV Indonesia, 인도네시아 저작권총국(DJKI), 통신디지털부(Komdigi), 금융감독청(OJK), 코카콜라 인도네시아(Coca-Cola Indonesia), 그리비(Grivy), 구글 클라우드 인도네시아(Google Cloud Indonesia) 등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시〉

시) 화산 겨울-김동환



김동환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몇 개 도보고 앉아있을 것 같으면
하늘은 도록재질을 씌워 채
겨울을 흘려보내고, 목을 긁어대 처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만 허투루 도해냈어
이상한 의무는 마다
아슬하게 뇌둔 봉우리,
정도, 꼴
삼키지않는 곳에만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식어 우리 사이에 서리로 기둥에 남아
있는 온난한 불씨 하버 짐을 보관하고다.
다들 알고 있었어.
불이 지나간 자리엔
겨울이 온화하다는 것을 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헤아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것이
가장 차갑게 식어가는 계절,
우리는 그렇게 겨울로 드리게
식어간다.

시작 노트:

북부와 수마트라 사이의 좁은 순다해협, 사이에 군중, 크라타카우(kerakatau). 둥지가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크라타카우의 존재'라 하더군요. 그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는 카카오를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회전 머무는 곳마다/ 아슬하게 하이브리드 봉우리"에는 불안한 삶의 관계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을 불씨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식어"가 된다. 글: 김주명(시인)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살기좋은 정주여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유턴하세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역할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인센티브 정보 제공
조세 정보 제공	부지선정 정보 제공
행정적 지원 제공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보부터 행정지원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